[UCI]I804:24011-200000240298

2010년 8월
박사학위논문

탄력성을 매개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장 은 옥

탄력성을 매개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 ·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Stress on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with Resilience as a Mediator in Adolescents

2010년 8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특수교육학과

장 은 옥

탄력성을 매개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특수교육학과

장 은 옥

장은옥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일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연	(인)
심 사 위 원	고구려대학 교수	곽수란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승희	(인)

2010년 6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표 목 차 ····· iv

그림목차 ····· v

ABSTRACT ····· v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3. 용어의 정의 ····· 7

Ⅱ. 이론적 배경 ····· 10

1.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 10
   1)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 10
   2) 정서・행동문제의 분류 ····· 12
   3) 정서・행동문제의 원인 ····· 18
2. 청소년의 탄력성 ····· 23
   1) 탄력성의 개념 및 구성요인 ····· 23
   2) 탄력성의 관련요인 ····· 28
   3) 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 32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 33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개념 ····· 33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 35
4. 스트레스 ····· 40
   1) 스트레스의 개념 ····· 40

2) 스트레스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탄력성 및 정서・행동 문제의 관계 ····· 43

Ⅲ. 연구방법 ····· 49

1. 연구대상 ····· 49
2. 연구모형 ····· 51
3. 변수와 연구도구 ····· 53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 54
   2) 스트레스 척도 ····· 55
   3) 탄력성 척도 ····· 56
   4)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척도 ····· 58
4. 연구절차 ····· 59
5. 자료분석 ····· 59

Ⅳ. 연구결과 ····· 65

1.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 변수들의 차이 분석 ····· 65
2.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상관분석 ····· 67
3.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인과분석 ····· 68
   1) 구조방정식모형 ····· 68
   2) 구조방정식모형 평가 ····· 70
   3)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 ····· 72

Ⅴ. 논의 ····· 79

1.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 변수들의 차이 ····· 79
2.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 82
1) 내면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 82
2)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 83
3)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비교 ····· 84
3.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 86
1) 내면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 86
2)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 88
3)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관련변수들과의 인과관계 비교 ··· 89

Ⅵ. 결론 및 제언 ····· 93
1. 결론 ····· 93
2. 제언 ····· 94

참고문헌 ····· 96

부 록 ····· 118

표 목 차

<표 Ⅲ-1> 연구대상의 기초사항 ····· 50
<표 Ⅲ-2> 변수의 종류 ····· 52
<표 Ⅲ-3> 변수와 측정도구 ····· 54
<표 Ⅲ-4>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 55
<표 Ⅲ-5>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 56
<표 Ⅲ-6> 탄력성 척도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 57
<표 Ⅲ-7>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척도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 58
<표 Ⅲ-8> 관찰변수들의 기초 통계치 ····· 61
<표 Ⅳ-1> 성별에 따른 관찰변수들의 차이분석 결과 ····· 66
<표 Ⅳ-2> 관찰변수들의 상관관계 ····· 67
<표 Ⅳ-3>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 72
<표 Ⅳ-4>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외생변수) ····· 73
<표 Ⅳ-5>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내생변수) ····· 74
<표 Ⅳ-6> 전체, 직접, 간접효과 ····· 76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청소년 탄력성의 이론적 모델 ····· 27
〔그림 Ⅲ-1〕 내면화문제 연구모형(모형 1) ····· 52
〔그림 Ⅲ-2〕 외현화문제 연구모형(모형 2) ····· 53
〔그림 Ⅳ-1〕 내면화문제 구조방정식모형(모형 1) ····· 69
〔그림 Ⅳ-2〕 외현화문제 구조방정식모형(모형 2) ····· 69
〔그림 Ⅳ-3〕 내면화문제 구조모형 추정결과(모형 1) ····· 75
〔그림 Ⅳ-4〕 외현화문제 구조모형 추정결과(모형 2) ····· 75

ABSTRACT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Stress on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with Resilience as a Mediator in Adolescents

Jang, Eun-Og
Advisor : Seunghee Lee,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effects which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tress and resilience have on the adolescen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he research model to set the relations between them was structured and the verification was performed.

In this study, two coeducational middle school in Gwangju city were convenience sampling and a questionnaire on basic facts and a questionnaire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 Stress Scale, Korean Adolescents Resilience Scale(K-ARS), Korean-Youth Self Report(K-YSR) were distributed to eighty students and collected. The results of the 637 questionnaires(boys: 333, girls: 304) considered valid data through the analysis of *t*-test(two-independent sample),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ng model were like followings.

First, as the result of conducting *t*-test(two-independent sample) through SPSS program in order to understan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ariables between sex,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among the four variables related to the male students and four variables related to female students showed in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but the problems with stress and resilience showed an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average scores between tow sexes were compared specifically, female adolescents showed higher average scores than male adolescents in the factors of parents, school working, appearance, materials and resilience except for the factor of friends in the stress variable.

Secondly, as the result of conducting a Pearson relational analysis in order to see what relations there were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tress and resilienc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tress showed an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except for the factors of conflict-solving and school working. Interparental conflict and stress showed an significant static relation and interparental conflict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howed an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Stress and resilience showed an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except for the factors of appearance and personal internal resilience, and stress and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showed an significant static relation.

Thirdly, as the result of conducting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ng model(SEM) using LISREL program in the way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o grasp the causation which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tress and resilience have on the adolescen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direct effects which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has influence on the internalizing problems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s while indirect effects through resilience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s, and direct effects which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has influence on the externalizing problems showed the insignificant effects. Therefore, it was shown that resilience played an role as a full mediator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internalizing problems but not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And also, direct effects which stress has influence on the internalizing problems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resilience showed the significant effects, and direct effects which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has influence on the externalizing problems showed the insignificant effects while indirect effects through resilience showed the insignificant effects. Therefore, it was shown that resilience didn't play a role of partial mediator between stress and internalizing problems, nor a role of a mediator between stress and externalizing problem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사춘기 변화에서 시작하여 성인기 역할을 성취하면서 끝나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하는 시기로서, 전 생애를 걸쳐 영유아기(생후 0-3세)와 함께 중요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 기간이다. 영유아기는 일생 중 약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청소년기는 사춘기변화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약10년 이상 걸린다. 사춘기변화의 연령하향화로 청소년기의 시작은 빨라지는데 비해 성인기로 이행하는 것은 더욱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는 점점 길어진다.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 시기는 초기 청소년기, 중기 청소년기(고등학교 시기, 15세~17세), 후기 청소년기(고등학교 졸업반 무렵부터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시기에 해당하며, 17세에서 20대 초반)로 나누기도 한다(안동현 외, 2007).

초기 청소년기는 매우 빠르고 급격한 생물학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시기는 여러 발달단계 중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로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의 지위(role status) 변화와 같은 생활 변화와 사춘기의 급격한 생물학적 변화가 덧붙여져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즉 전적으로 다른 형태의 행동, 새로운 적응 반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안동현 외, 2007).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물학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신현숙・구본용, 2001),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 상태에 놓이기 쉽다. 특히 오늘날의 청소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가치관의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사회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가족의 기능성 상실이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 등으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행동을 표출하고 있다(한현아・도현심, 2008). 또한 청소년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급격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들은 부모와 관련된 부정적 생활 사건들(parents-related negative life events), 즉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폭력 등은 청소

년의 정신적, 행위적 반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부정적 가족생활 사건으로 발생된 정신적 충격(traumatic shock)은 만성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행위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김동식, 2007).

정서・행동문제(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의 내면화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주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비행,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문제(externalizing problems)를 포함한다(Achenbach, 1991).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 결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음을 밝혀지고 있다. Rosenberg와 Rosenberg(197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고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송미경・배주미, 2006), 가족간의 갈등, 친구의 비행수준,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황혜원, 2007), 비행 또래 친구의 여부(최선희・김희수, 2006),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공격행동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사회적 능력은 더 낮았으며(Kernic et al., 2003), 부모의 관심, 가족유대감, 부모간 갈등과 같은 가족의 심리적 기능이 낮을수록 내면화문제의 수준이 높았고,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외현화문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채유경, 2005). 그리고 가정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내면화 및 외현화 증상을 보이며(Rodgers & Rose, 2002), 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더 적었고, 부모의 학력이 낮았으며, 가정의 수입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정, 2008).

한편, 가정은 사회화 과정의 첫 기관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부모는 최초로 자녀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면서, 강력한 모델로서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을 획득하는 사회화 과정과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경감할 뿐만 아니라, 완충시키는데 핵심역할로 인식되고 있다(송미경・배주미, 2006). 이러한 시각에서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가정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공격행동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Kernic et al., 2003),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갈등(현재,

과거)은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유경, 2005). 송미경과 배주미(2006)는 비행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즉 부모가 야단을 많이 치고, 강압적이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 양육한다고 지각하는 경우 폭력과 같은 외현화문제가 많음을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 불복종, 행동 문제와 같은 외현화문제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문제와 관련이 많다(Emery, 1982). 또한 성별에 따라 나타내는 문제 유형에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아나 여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ych & Fincham, 1990). 한편,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는 이혼 그 자체보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Hetherington, Cox & Cox, 1985). Grych와 Fincham(1990)은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부부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부부갈등 그 자체가 자녀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변화시켜 전반적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김효은, 2006).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장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교사와 친구를 통해 사회생활을 배우고 경험한다(Kim,Chung, & Yoo, 2007). 청소년기에 친구는 정서적 공감자이며 지지자로서 친구집단을 통하여 안정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Kwak, 2007). 그러나 청소년들은 친구로부터 따돌림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Chung & Kim, 2000). 이와 같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사회적 경험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생겨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하며, 그러한 스트레스 경험은 그 이후의 삶에서 행동적 문제들과 같은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Campbell, 1994).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2008)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46.5%였으나 이 가운데 남자 40.9%, 여자 52.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9)에서도 여자청소년(52.3%)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41.3%였으나 이 가운데 남자 36.5%, 여자 46.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여 고3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50%를 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9년에 수행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선별검사에서도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생은 약 11%, 중학생은 15.1%, 고등학생은 19.7%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우울증 고위험군은 매우 심각하며, 여학생의 경우 24.6%가 고위험군으로 선별되어 4명 중 한명은 중도 이상의 우울함을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김윤 외, 2009).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으로 지속될 수 있다. Kazdin(1993)은 역기능적 행동이나 여타 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성인기까지 장애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나 스트레스의 경험들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경험을 한 후에 우울, 불안, 비행 등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있다(Garmezy & Rutter, 1983; Garmezy & Rutter, 1985). 이와 같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적응을 보이는 발달과정 또는 기제를 탄력성(resilience)이라고 부른다(Masten, 2001).

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탄력성을 긍정적인 적응의 결과로 보는 관점과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는 관점, 또한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특질로 보는 관점과 발달과정에 따라 변화

하는 능력으로 보는 관점 등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이해리・조한익, 2005). 이처럼 다양한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탄력성은 한 개인이 위험상황이나 역경과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더라도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이며,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적응(positive adaptation)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Garmezy & Rutter, 1985; Masten, 2001; Werner & Smith, 1982). 탄력성이론에 의하면 탄력성은 역경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그 기능 수행을 적절하게 다시 회복하는 특질을 일컫는 개념을 의미하며, 이것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개인에게 닥친 역경이나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함으로써 발달하게 되는 변화 가능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Smith. E. J, 2006). 즉 탄력성은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위험요인들을 중재하여 긍정적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적 능력으로서(이해리・조한익, 2005), 청소년들이 생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다루어냄으로써 긍정적으로 발달,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핵심적 기술들과 태도들 그리고 능력들을 밝혀주는데 유용한 개념이다(이해리, 2007).

이러한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적 접근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인물중심의 접근(person-focused approach)과 변수중심의 접근(variable-focused approach)이다. 인물중심 접근에서는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을 비교함으로써 탄력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변수중심의 접근은 다변수들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위험수준, 적응수준 및 보호요소들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예측요인에서 적응수준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변별적인 경로를 밝힘으로써 이들은 위험요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소들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개입에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Mesten, 2001). 이에 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위험요소가 필요한데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주요 위험요소로 앞서 언급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의 탄력성에 대한 매개적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던 연구들은, 탄력성은 부모간의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노출의 위험과 발달적 적응사이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장덕희, 2010), 탄력성이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 수준 간에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성경・홍세희・최보윤, 2004).

청소년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물학적인 발달이 2년 정도 앞서기도 하고(정진

경 외, 2005), 최근 변화된 사회현상을 볼 때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와 같은 위험요소를 지각하는 정도와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내는 정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남아가 부부갈등의 영향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었다(Emery & O'Leary, 1982; Hart et al., 1998)는 연구, 여아가 부모의 갈등에 남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권영옥, 1998)는 연구가 있다.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재홍·윤경란 2007; Byrne et al, 2007; Hampel & Petermann, 2006; Brooks et al, 2002)고 보고하고 있다. 탄력성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높다(이용준·박경자, 2005)는 연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이윤주, 2004)는 연구, 성차가 없다(정선미·조옥귀, 2009; 최지영·박경, 2007; 하현주 외, 2008)는 연구 등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서·행동문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고, 더 심각한 수준의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며(김유경, 2004),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면화문제는 여학생이 더 많이(고정자, 2003; 노숙영, 1998),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문제는 남학생이 더 많이 보였다(고정자, 2003)는 연구들은 일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과 스트레스에 따른 선행연구들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그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대인관계, 갈등해결능력, 대처능력들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모색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정보와 가능성들을 시사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탄력성을 매개로 정서·행동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부부갈등, 스트레스에 불가피

하게 노출 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탄력성의 매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어떻게 적응적으로 발달해 가는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으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의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탄력성을 매개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및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① 청소년

청소년기본법(법제처, 2010)의 청소년 연령은 9세~24세이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학년 남녀 학생을 말한다.

②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부부갈등이란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 불일치 정도와 그러한 불일치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대립이나 긴장을 의미한다(Coleman, 1984)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란 가족구조가 해체되지 않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의 욕구가 상충되거나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외현화 되고 이를 청소년 자녀들이 지각하여

그들의 심리적 건강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갈등 특성요인에 해당되는 '빈도', '강도', '해결'을 말하는데, '빈도'는 부부갈등에의 노출정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의미하며, '강도'는 부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의미하고, '해결'은 부부갈등의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자녀의 지각을 의미한다.

③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유발된다는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을 받아들여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청소년에게 내적 또는 외적 요구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지각으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활 장면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긴장, 고통, 부담감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개발한 청소년의 긴장과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을 부모요인, 학업요인, 친구요인, 외모요인, 물질요인으로 분류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

④ 탄력성

Rutter(1990)는 탄력성을 스트레스와 역경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개인차라는 현상적인 긍정적 축이라고 하였으며, Garmezy(1991)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것보다 부정적 사건들로부터 회복이라고 하였다. 또한 Werner와 Smith(1982)는 탄력성은 위험상황이나 심각한 역경과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발달하는 성장의 힘이며 불행이나 충격으로부터 급속히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의 수준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개인내적 특성과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위험요인들을 중재하여 긍정적으로 적응해나가도록 돕는 과정적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이 정의에 따라 이해리와 조한익(2005)이 개발하고 타당화(이해리·조한익, 2006)한 척도의 점수를 의미한다. 탄력성은 개인내적 탄력성과 대인적 탄

력성으로 구분하여, 개인내적 탄력성의 하위영역은 청소년 개인의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의지적 차원 및 영성적 차원의 탄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차원 탄력성은 청소년 개인의 외적 환경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양상으로서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각 차원에서의 돌봄 받음과 적극적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돌봄 받음은 청소년이 해당 외적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관심과 돌봄을 의미하며 적극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이 해당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질적인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⑤ 정서・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는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말하며, Achenbach(1991)가 청소년들이 주로 나타내는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해 제작한 Youth Self-Report를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그리고 홍강의(2001)가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의 내재화문제 척도와 외현화문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각각 의미한다.

ⓐ 내면화문제

내면화문제란 다른 사람을 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불안, 우울, 위축 등이 포함된다(Wicks-Nelson & Israel, 2003). 본 연구에서는 K-YSR(오경자 외, 2001)의 3개 척도(위축척도, 신체증상척도, 우울/불안척도)의 합인 내재화문제척도의 점수(*T*점수)를 의미한다.

ⓑ 외현화문제

외현화문제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공격성이나 비행등이 포함된다(Wicks-Nelson & Israel, 2003). 본 연구에서는 K-YSR(오경자 외, 2001)의 2개 척도(공격성척도, 비행척도)의 합인 외현화문제척도의 점수(*T*점수)를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1)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정서・행동문제(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라는 용어는 지난 수십 년간 공포증, 위축, 불안, 우울, 선택적 함구증,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다양한 상태를 지칭하는 총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방명애, 이효신 역 2004). 현재까지도 각 단체나 개인의 견해, 선호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에 놓인 그 과도기적 발달 단계상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제 2의 탄생기, 주변인 등 청소년기의 이러한 불안정한 속성을 상징하는 용어나 정의는 이미 상식처럼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청소년기라는 시기 자체가 발달 단계상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러한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특징 및 그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행동 자체가 정상발달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다(Freud, 1946).

그러나 청소년기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행동 및 여타 불안정한 특징들은 정상발달의 한 단면이 아니라 성인기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병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청소년기에 성인기의 정신장애가 시작된다는 것이다(김윤 외, 2009).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소아, 청소년기의 정신병리가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출생 후부터 추적 조사 중인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17-18세 때 우울증의 일부 증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25세가 되었을 때의 결과를 연구한 결과, 청소년기 때 일부 우울증상을 갖고 있던 경우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사고, 자살시도와 연관이 높은 것을 밝히고 있다(Fergusson, Horwood, Ridder, & Beautrais, 2005). 또한 Lee Robins는 St. Louis 병원의 아동 클리닉의 기록을 이용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골라 30년 동안 추적관찰 하여 그들이 어른이 된 후에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한 결과, 정신과적 질환의 발병율이 비교집단

보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 행동이 어른이 된 후에 사회병적 인격(sociopathic personaliy)의 위험인자가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Robins , 1991).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비록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속성 자체가 정상발달단계의 일부분이며 그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모두 병리적인 것으로 진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단계에서조차 더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그러한 문제행동 자체가 이미 부적응을 유발하고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이건 비정상적이건 그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Ross(1974)는 아동의 행동이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되어 아동 주위의 어른들에 의해 그 행동의 발생빈도나 정도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때, 그 아동은 정서・행동문제가 있다고 함으로써 사회규범과 성인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규범이란 범죄행동을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규율로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되는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이 속해있는 사회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Kauffman(2005)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학업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적 수행에 있어서 아동에게 적절한 나이, 문화, 인종적 규준과는 다른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수반하는 장애라고 정의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포함한 적어도 둘 이상의 장소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장애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문자(1988)는 아동의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보이게 되는 행동으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또한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이들은 부적절하고 공격적이며 기괴하거나 또는 위축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학습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1989).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는 청소년의 행동 중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정서 및 행동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부적절한 정서와 부적응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Wicks-Nelson & Israel, 2003).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연령, 학년, 그리고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으

며(이소현, 박은혜, 2006), 학생 자신의 학습과 사회적 발달을 방해한다(배내윤, 2007).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행동특성은 일반학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정서를 과도하게 표출 혹은 억압하기도 한다. 이로써 학생 스스로는 일반적인 정서발달을 저해 받고, 그 학생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또래, 교사, 부모, 형제들에게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Emslie & Mayes, 1999). 자신의 의지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내기가 어렵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불안감, 공포심이나 공격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며, 반대로 사회적 위축을 나타내기고 한다(김보람·이경숙·박진아, 2007).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많은 연구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며 더 심각한 수준의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김유경, 2004). Liu와 Kaplan(1999)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보다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과 어울릴 확률이 더 높고 권위에 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행동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았다. 또한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냈고(고정자, 2003; 노숙영, 1998),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고정자, 200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남자청소년에게는 외현화문제가, 여자청소년에게는 내면화문제가 더 빈번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남자청소년의 외현화문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자청소년의 외현화문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관광부, 2004).

2) 정서·행동문제의 분류

청소년기에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문제행동으로 정서·행동문제를 들 수 있다(Achenbach, 1991). 청소년기에 심리적 부적응이 표현될 수 있는 형태는 불안, 우울 등의 내적인 증상이 주가 되는 정서장애와 내적인 긴장, 갈등을 밖으로 행동화하여 표현하는 행동장애가 주가 되는 병리적 현상으로 대변된다.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에게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뚜렷이 구분되지만 청소년에게서는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증상과 함께 반항적인 행동이나 비행등의 행동장애가 나타난다.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Achenbach(1991)가 제작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Youth Self Report)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크게 내재화문제(internalized problem)와 외현화문제(externalized problem)로 구분된다. 이 척도는 만 11-18세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하는 행동평가도구로 광범위한 정상집단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규준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청소년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문제행동으로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이 포함되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주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범법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술, 담배를 하는 것 등의 공격적인 행동과 비행 행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Achenbach(1991)의 분류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내면화문제

①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어떤 사람이 사회접촉을 회피하거나 탈피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Calkins & Fox, 2002; Kerr & Nelson, 1989). 즉 다른 사람들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며, 친구가 없어 고립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늘 혼자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조광순, 2004). 사회적 위축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문제는 행동장애, 억압, 낮은 자존감이다(김보람 외, 2007).

사회적 위축으로 인한 문제와 예후를 볼 때, Cillessen 등(1992)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의 유형을 공격, 산만, 거친 행동 유형과 고립, 부끄러움, 사회적 위축 행동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위축 아동은 공격적인 아동유형보다 더 많은 집단 따돌림이나 희생을 당하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Calkins와 Fox(2002)에 따르면 사회적 위축 아동은 유아기 때부터 사회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며, 낯선 사

람과 교류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고, 성장하면서도 억제행동과 부정적인 정서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남녀 모두 불손, 공격성, 사회적 위축행동 등이 또래거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이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보람 외, 2007).

사회적 위축으로 인한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들에는 우울,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외로움, 물질남용, 지속적인 학업 및 직업상의 어려움, 점점 더 좁아지는 대인관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도 화목한 가정환경, 학업능력, 그리고 사회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 등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이승희 역, 2007).

② 신체적 증상

신체적 증상은 의학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지만 근육통, 두통, 과민성 대장 증상, 소화불량, 만성피로, 현기증, 숨 가쁨, 건강 염려증 등과 같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이다(배내윤, 2007). 신체적 증상을 Steckel(1943)은 억압된 정서가 신체증상을 통해 나타나는 신경증적 현상으로 보았으며, Menninger(1947)는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한 결과로 인하여 초래된 미성숙한 방어기제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Kirmayer(1984)는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Lipowski(1988)는 원인이 발견되지 못하고 불분명한 신체 불편감과 증상을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고통 받는 것으로써, 이런 증상의 원인을 신체적인 원인 탓으로 돌려 의학적 처방에 의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Kellner(1991)는 한 개 이상의 신체 증상을 보이고, 적절한 평가에 의해 신체증상을 설명해 줄만한 기질적 병리 및 생리적 원인이 없으며, 혹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증상 호소 및 사회적, 직업적 장애가 실제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경우 이를 신체적 증상으로 보았다. 신체적 증상을 보이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증상에 호소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을 함께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한 가지 증상이 없어지면 또 다른 증상 때문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Kellner, 1991). 이와 같은 신체적 증상은 생물학적으로 아동에게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 학업이나 과제수행에 적응을 곤란하게 한

다(Lipowski, 1988).

③ 우울/불안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개인적인 삶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서조절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정서조절의 실패는 일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하게 되며 과잉행동이나 행동억제로 나타날 수 있다(Cole, Martin, & Dennis, 2004). 우울과 불안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정서문제로 일시적 우울, 불안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질상 내향적이고 내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나치게 통제된 또는 성격장애로 명명되어 왔다(방명애・이효신 역, 2004).

우울은 일상생활 기능을 방해할 만큼 정상적이지 못한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되며(Muse, 1990),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정서적인 문제는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된다거나 지루함, 성급함, 좌절감 등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무가치함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방명애・이효신 역, 2004). 이러한 증상들은 자기혐오, 자기비난, 자기연민, 절망감, 무력감, 낙담 및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만성적인 피곤, 낮은 에너지 수준 상태에서의 두통과 복통, 수면장애, 체중 증가 또는 감소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배내윤, 2007). 또한 우울은 학업수행문제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어, 우울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적응을 잘 못하여 대인관계 의존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또래관계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가져온다(Emslie & Mayes, 1999).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의 특성은 성인기에 비하여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자아 존중감의 저하가 나타나며, 인지적 장애가 심하고, 공격적 행위, 약물남용, 과다행동, 비행, 자살사고 및 자살행위와 관련되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명식, 2008). 우울은 실제로 인구의 15%에서 일생에 한번은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이종국 외, 2009).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문제, 가족의 응집력이 낮거나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Graber, 2004), 또래집단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거나,

자기를 이해해 줄 친구가 없을 경우 우울정도가 높다(박미자, 2008).

불안은 주관적인 염려와 확산적인 성향과 생리적인 각성을 수반하는 혐오적이거나 불쾌한 상태(King & Ollendick, 1989)로 정의되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흔한 심리 및 정신건강 문제다(Gelfand & Drew, 2003). 불안은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채 막연한 상태로 경험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강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도 가끔 경험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박미자, 2008).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해 위험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미래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은 과소 추정하며,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가능성은 과대 추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Spence, Donovan & Brechman-Toussaint, 1999).

이와 같은 우울과 불안은 공존율이 높은 가운데 청소년의 인지영역, 대인관계 영역, 학업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응문제를 야기하며 외현화문제에 비해 좀 더 만성화되고 증상이 심화된 후에야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중·고등학교시기에 유병율이 증가하므로 청소년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들의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조기 발견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윤 외, 2009).

(2) 외현화문제

① 비행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일탈행동, 범죄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명확하게 통일된 개념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이종원 외, 2001). 일반적으로 비행은 사회적, 법률적, 도덕적,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행해지는 위반행동 혹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조기 일탈행동은 청소년 비행과 관계가 깊다. 일부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다행동, 성급함, 충동성 등 부적응 행동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은 아동기 초반에 거짓말하기, 다른 아이들을 때리기, 친구 장난감 빼앗기 등 조기 일탈행동을 나타내며 이러한 현상은 여자아이들

보다는 남자아이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어릴 때 일탈의 징후를 보인 아동이 그 이후 계속 비행으로 발전하는지의 여부는 그 행동에 대한 가족의 반응양식에 달려있다. 가족이 참을성이 없거나, 냉담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엄하거나 비난하는 등 반응이 적절치 않으면 아동의 옳지 못한 행동은 강화된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아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결과 학교에서의 부적응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아동이 어린 나이에 일탈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들이 성장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애령, 2004).

이처럼 청소년 비행이란 법률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도덕적, 관습적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청소년의 행위를 의미하고, 비행청소년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손상을 입혀 사회적 통념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조광순, 2004). 그 적용범위는 청소년들이 행하는 음주, 흡연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문제행동에서부터 강도 등 범위가 다양하다(박미자·이창식, 2008). 한편, 비행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현대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 비행은 현실 공간 이외에 가상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김수정, 2004). 이러한 청소년 초기의 비행 행동은 대부분 방과 후에 이루어진다(Fox & Newman, 1998).

② 공격성

공격성이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로서,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성으로 나타낸다. 즉 때리거나, 차고, 싸우고, 물고, 언어적으로 위협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 및 쉽게 화를 내고, 화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한다(조광순, 2004). Connor(2002)는 공격성을 매우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공격성에는 부적응이나 기능장애, 부적절한 공격성, 실제적인 위험 또는 지각에 대한 분노반응, 그리고 우울증까지도 포함 될 수 있다고 정의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의 네 가지 하위타입을 말하고 있다. 첫째, 방어적 공격성(defensive aggression)은 실제 또는 자각하는 위험에 대한 분노 반응으로 위협이나 절망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둘째, 범죄적 공격성(offensive aggression)은 공격자들의 쾌감을 위한 이유

없는 공격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우월감, 영역, 음식, 그리고 물건의 쟁취 등의 대가가 원동력이 된다. 감정은 거의 자극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성공으로 인해 강화되며 사회적 역할 모델이 있는 편이다. 셋째.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란 희생자와 다른 이들의 관계를 해치려는 것으로서, 지목 대상아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동료들이 그를 거부하도록 만들거나 대상아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교우관계를 끊거나 소외시키는 행동이다. 넷째, 자기 파괴적인 공격성(harmful to oneself aggression)이란 스스로에게 해로운 공격성으로 곧 자멸적 관념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이 공격성은 적의나 증오와 관계가 있는 모든 종류의 파괴적 행동, 특히 육체적인 타격이나 악의를 품은 발언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행위를 말하며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간의 조화로운 관계유지를 못하고 방치되면 가정에서 규범들을 배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지속적인 욕구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욕구충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박미자 · 이창식, 2008).

3) 정서 · 행동문제의 원인

정서 · 행동문제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Kauffman(1993)은 정서 · 행동문제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 기질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및 신경 생리학적 요인 등 내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입장과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정적 요인 등 개인 외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 그리고 이 두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경 및 사회적 맥락이 개인의 행동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서 · 행동문제는 오직 자신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 그리고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부적응한 행동이라고 본다.

이처럼 정서 · 행동문제는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정서 ·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학자들의 다양한 분류를 종

합해 보면 신체적 요인으로서의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적절하게 조화되지 않았을 때 정서·행동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에서는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물학적 요인

정서·행동문제는 유전적, 신경학적 또는 생화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정 생물학적 요인과 정서·행동문제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처럼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생물학적 요인에 대해서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전이나 기타 체질상의 요인들이 특정 행동 패턴을 발달시키는 상황을 조성해 준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김은화, 2007).

신경계의 기능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기질적 요인의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이상발달이나 이상기능은 신경계의 발달을 이끄는 유전자 과정의 이상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능 이상은 출생 시부터 이미 예정되었을 수 있으며 임신 중, 출산 시, 출산 후에 일어난 일 등이 기능 이상을 유발했을 수 있다(Wicks-Nelson & Israel, 2003)).

정서·행동문제를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보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류를 통해 정서·행동문제를 논의 하였는데 Kauffman(1993)은 생물학적인 요인에는 선천적 사고, 뇌손상 또는 뇌기능 장애, 영양장애, 생화학적 불규칙성, 신체적 질병과 무기력, 기질장애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의견을 같이 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찾아보면, Kagan(1984)은 사람에게는 기질이라고 불리는 출생 시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행동양상이 있고, 그 기질에는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둔한 기질 등이 있으며 모든 아동은 출생 시 서로 다른 기질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심리사회적 요인

① 심리적 요인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기여하는 요인을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박미자·이창식, 2008; 손민경·이경님, 2006; Rosenberg & Rosenberg, 1978), 자기통제력(고정자, 2005; 김희화, 2004; 남현미·옥선화, 2001) 등과 같은 내적 변수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영경(2007)의 연구에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더 많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여자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더 많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가족적 요인

가족적 요인은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단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들과 함께 상호작용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데 즉, 가족의 구성원인인 부모, 형제 등 가족 간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과의 애착을 느끼고 그 구조 안에서의 역할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방법과 부정적인 형제, 자매간의 관계에 의하여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정 내의 부모의 폭력적인 양육방법, 부모의 이혼, 형제·자매간의 갈등의 요소가 많을수록 아동들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정신적으로 위축된 행동과 함께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부모에게 학대 받은 아동들은 우울증과 같은 내면화문제와 품행장애와 같은 외현화문제를 모두 포함한 다양한 정서·행동문제를 보인 위험을 지니게 된다(Windom, 1997).

이와 같이 가정요인에는 가족의 형성과 부모의 훈육방식, 이혼과 편부모의 증가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 또는 태도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Kauffman(1993)은 이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부모의 결손원인과 결손기간은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우선 결손원인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분리보다는 이혼으로 인한 분리가 자녀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느껴서 비탄, 우울, 움츠러듦과 같은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등을 자녀에게 표출해 버리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도 공격적이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결손기간에 관해 결손 이후 2년까지는 갑자기 변화된 생활유형과 대상인의 부재로 인한 가족구조 내 역할이 변모되고, 사회적 관계와 지지망이 축소됨으로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외적인 스트레스원이 누적되어 우울, 자기비하, 분노, 슬픔, 수치감이 극대화되고, 따라서 적응하기 힘들게 되어 부적응 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이은경・박성연, 2004). 특히, 해마다 증가하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해체를 경험한 자녀들은 분노, 죄의식, 왜곡된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 형성과 같은 정서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 인지, 학업성취 등 영역 뿐 아니라 정서・행동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게 한다(윤혜미, 2005)

정서・행동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역기능적인 가정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역기능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가정 내에서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관점에서이다. 경제적 어려움, 장애인 자녀나 불치병에 걸린 가족의 끊임없는 요구,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의 심한 고통 등과 같은 역기능적 가정은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없으며,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이 가정을 더욱 긴장시키게 된다. 둘째, 중독증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독증세가 있는 부모들 즉, 일, 도박, 성, 무절제한 소비, 종교 등에 중독된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역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감정의 손상을 가져온다. 셋째, 가족들의 욕구충족의 관점에서 정서적 욕구는 다른 사람과 가까울 필요, 소속할 필요, 자신을 표현할 필요로 나타난다. 그러나 역기능 가정은 가족들의 욕구가 정상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가정이다(배내윤, 2007). 이와 같이 가정환경 역경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성이 깊으며 가족의 구조적 결손, 경제적 문제, 부부 및 부모-자녀간 갈등, 부모의 품행문제, 부모의 건강 및 의료문제, 부모의 가족구성원의 문제 등 부정적인 생활경험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현숙, 2004). 한편,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의 갈등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소한 가정불화에도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하기 쉽다. 즉,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여자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영향을

많이 미친다(Barber & Olsen, 1997).

한편, 가족의 구조적,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개의 경우 이것은 물리적 환경특성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적인 면에 문제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 중에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 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가족 내의 역할, 규칙, 힘 등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권복순, 2001).

③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보면 생물학적 요인이나 가족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킨다는 단순한 인과론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렵지만,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등이 또래나 교사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소현·박은혜, 2006).

학교는 청소년기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학생 모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전담하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역할 수행보다는 성적 중심의 진로지도 그리고 대량 생산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환경으로, 학생들에게 지나친 경쟁과 긴장 상태를 유발시키며, 좌절 및 부적응을 초래하여 학교중퇴, 가출, 비행, 폭력, 자살 등 학생비행이나 청소년 문제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이미애, 2006). 그러므로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는 성, 연령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부나 성적 등과 같은 학업문제가 가장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성적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은 성적 그 자체보다는 성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친구와의 경쟁관계,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험점수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교육방식으로 인해 시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반의숙, 2009).

학교 내에서 교사는 청소년들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대상으로서, 학생들은 교사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학교나 학급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이 신체적, 언어적, 행동이나 표현에서 교사를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지각하게 되면 학급이나 학교생활에서 고민과 갈등이 없는 원만한 생활을 하게 되어 사회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반대로 교사를 거부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잘 적응하지 못한다. 교사와의 관계가 불편할 경우, 미성숙한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생활을 불만족한 상태로 보낼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부적응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갈등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류동훈, 2000).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갈등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은 친구관계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며 친구집단에 동조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친구 집단의 가치체계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칫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현아와 도현심(2008)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래지지가 내면화, 외현화 증상을 중재하며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과 거부를 경험하였거나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이 문제행동을 경험하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청소년의 탄력성

1) 탄력성의 개념 및 구성요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마음의 보다 밝은 면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규명하고 이를 북돋고자 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의 한 부분으로 학자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긍정적인 적응결과를 가지고 오는 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고위험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문희 외, 2008).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하다보면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하에서도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 모두가 부적응적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어려움에 대해 탄력적일 수도 혹은 취약할 수도 있는 탄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이지연, 2006). 탄력성(resilience)이란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없이 사용되어 용어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탄력성은 비취약성(invulnerability)과 스트레스-저항(stress-resistance)과 같은 용어로서 이해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화하기 어려운 매우 추상적인 성격임을 드러내고 있다(Lightsey, 2006).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용어에 있어 일치되지 않아서 회복력(이경희, 2008), 극복력(백경원・최미혜, 2006; 신영희・심미경・김태임, 2006), 탄력성(주소영・이양희, 2008; 천희영・옥경희・황혜영, 2008), 심리적 건강성(김성수, 2006; 이완정, 2002), 자아탄력성(김수정, 2008; 정선미・조옥귀, 2009; 한현아・도현심, 2008), 적응유연성(안도희・김지아, 2007) 등의 다양한 용어로 언급되고 있으며 학교적응유연성(김예성・박현선, 2007; 류재중・조아미, 2007), 가족탄력성(이은희・구정화, 2009), 사회적 탄력성(김은영, 2009)과 같은 특정한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소년원생(김은영, 2009), 빈곤가정아동 및 청소년(김수정, 2008; 오승환, 2006), 학대아동(주소영・이양희, 2008), 부모별거 아동(천희영 외, 2008), 여성정신장애(성준모, 2007),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김예성・박현선, 2007) 등 열악한 환경과 역경적인 생활 사건에 노출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가 있는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탄력성(resilience)은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다(Block & Block, 1980; Block & Gjerde, 1990). 그러므로 환경적 요구에 따라 긴장 인내수준과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을 의미하며(Block

& Kremen, 1996), 외적· 내적 긴장원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Klohnen, 1996). Brooks(2006)는 탄력성을 스트레스와 일상속의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내고, 실망, 실수, 외상, 역경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능력이며, 분명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개발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는 역량이며, 인생의 도전에 대한 사고력, 자신감, 목적, 의무, 감정이입,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어려운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 발달이며, 인간이 스트레스에 저항하며 살아있는 것을 돕는 기제 또는 과정(Rolfe, 2004)으로, 심각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보여주는 적응적인 기능의 역동적 과정(Schoon, 2006)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인이 지닌 특질이 아니며 행동과 생활패턴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과 재난의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패턴이라는 것이다(Masten & Powell, 2003).

이처럼 다양한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개인적인 특성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인 동시에 사회적, 상황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상황 즉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등과 개인간의 상호작용 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Green, 2004). 즉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Luthar와 Cicchetti(2000)도 탄력성이란 성격특징이 아닌 역동적 과정이며, 전생애의 맥락에서 발달적 통합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개인과 환경 상호작용 맥락에서 시간에 걸쳐 변화하는 특성이라고 했다. 즉 탄력성은 지지적 환경의 맥락 안에서 선천적 요인들과 경험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기능이므로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탄력성의 구성개념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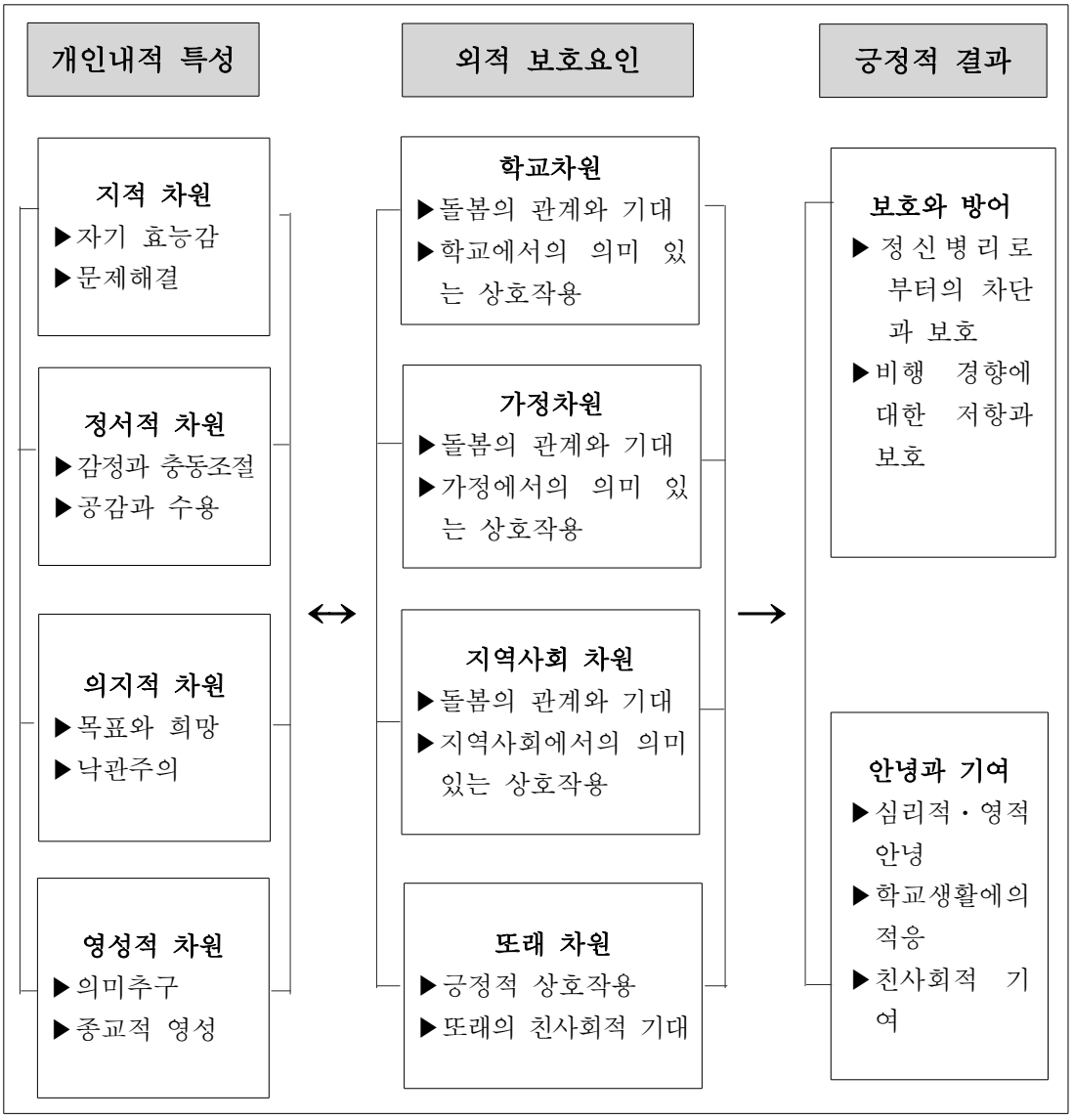
초기의 탄력성 연구는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 요인이나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한 지식이 발달할수록 개인과 환경 요인을 고려하기 전에는 탄력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탄력성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험과 해로운 사건의 영향을 바꿔도록 작용하는 개인이 내·외적인 보호과정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개념화되었다(Olsseon et al., 2003). 요인들 간의 역동적인 과정이 사람과 환경(environment), 그리고 사람과

결과(outcome) 사이를 중재한다(Ahern, 2006). Ahern(2006)도 청소년 탄력성을 개인적 특성과 가족 및 사회적 지원, 공동체 자원을 통합하는 위험에 대한 적응과정으로 보았다. 청소년 탄력성은 다차원적이고 행동의 연속체로 구성되고, 역동적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바뀌고 있다. 탄력성의 개념 정의는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탄력성에 대한 구성요소는 아직까지 합의된 의견이 없으며 학자나 탄력성 측정 척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Klohnen(1996)은 탄력성의 구성요소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정서조절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연숙(2006)은 Klohnen(1996)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을 탄력성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은애(2008)는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를 대인관계, 자아지각력, 정서조절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도남희(2009)는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해리와 조한익(2005)에 의하면 탄력성은 개인 내적 특성요인과 외적 보호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내적 특성요인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혹은 그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하며, 인지적 차원(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정서적 차원(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의지적 차원(희망・목표, 낙관주의), 영적 차원(의미추구, 종교적 영성)의 4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 보호요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서 개인의 역경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켜주는(그래서 더욱 탄력있게 해주는) 보호기제의 기능을 하는 요인을 말한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차원은 각각 돌봄의 관계와 기대 요인, 의미있는 상호작용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또래 차원은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요인과 긍정적 상호작용 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역경에도 긍정적 적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과 이론적 모델이 [그림 Ⅱ-1]에 나타나 있다.



자료출처: 이해리·조한익(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p. 357)

[그림 Ⅱ-1] 청소년 탄력성의 이론적 모델

[그림 Ⅱ-1]에 보이듯이 개인내적 특성요인과 외적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은 청소년 개인이 외적 보호요인(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가리킨다. 즉 외적 보호요인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돌봄의 관계와 기대는 외적 보호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이 받게 되는 관심과 기대와 돌봄을 의미하는 반면에,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청소년이 외적 보호요인에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질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증진시키는 행위들을 포함한다. 환경적 보호요인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청소년들이 유연하고 역으로 그러한 상호작용이 결여된 청소년들이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왔다. 탄력성이란 결국 이러한 내적 특성들과 외적 보호요인들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특징들이 결합되어 개인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해리 · 조한익, 2005).

2) 탄력성의 관련요인

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 문제 이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과 위험요인(risk factor)이다.

(1) 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많은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 영향들을 경감시키는 개인 및 환경적 특성들로 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김혜영, 2007). 청소년이 탄력성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보호요인으로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환경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택호(2004)는 개인에 관련된 보호요인은 높은 지능, 안정된 기질, 내적 통제성, 자기효능감, 긍정적인 정서가 있고, 가족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모와의 애착,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원, 가족의 온정과 응집성,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있다고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관련된 요인으로는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환경, 거주지역, 대인관계,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문희 등(2008)은 청소년기의 탄력성과 연관된 개인요인으로 남성, 책임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내부 통제소재, 사회적 성숙, 긍정적인 자기개념, 성취지향, 온화함, 타인에 대한 애정어린 보호, 사회적 지각, 구조에 대한 선호도, 가치관, 지능, 계획설정

의향 및 능력 등을, 가족요인으로는 최소한 한 사람과의 친밀한 유대, 애정어린 양육과 신뢰, 분리경험의 부재,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중독 문제의 부재, 필요할 때 가능한 도움, 자율성에 대한 격려(여자청소년), 감정 표현에 대한 격려(남자청소년), 친밀한 조부모, 가족의 조화, 형제자매 간의 애착, 네 명 이하의 자녀, 충분한 경제적·물질적 자원 등을, 그리고 청소년기의 탄력성과 연관된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이웃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들의 지지, 또래와의 접촉, 학교에서의 좋은 경험들, 긍정적인 성인역할 모델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Luthar(1991)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위험과 탄력성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긍정적 사건과 내적 통제소재, 지능, 자아발달, 사회기술 등을 밝혔으며, Spaccarelli와 Kim(1995)은 탄력적인 청소년들이 비탄력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지지적인 부모가 더 많았고, 지지적인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를 보다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본다고 하였다.

한편, Kaslow(2002)가 밝힌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으면서도 개인이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보호요인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 18세에서 59세 빈곤가정 학대 경험청소년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에 대한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자살시도 경험자에 비해 비경험자가 희망과 자기효능감, 대처기술, 가족지지, 친구지지, 물질적 자원 등이 보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2007에서 재인용). Benson(1990)도 가족 외부의 성인으로부터의 지지를 받는 것은 청소년이 위험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박주란(2009)은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역경지각 및 보호요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용서성향이 높을수록, 또는 긍정적 정서경험이 많을수록 역경지각을 긍정적으로 하도록 매개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김혜영(2007)은 학대경험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족적, 가족 외 환경에서의 보호요인들을 밝히고자 연구한 결과 미래에 대한 낙관성, 친한 친구의 친사회성, 종교적 신념 등은 적응유연성과 다양한 유형의 위험행동에 매우 영향력 있는 보호요인이었다. 그 밖에 다른 성인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기유능감 향상 측면에서만 영향력이 있었고,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흡연문제에서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가족, 타인과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도남희, 2009).

이 외에도 이해리와 조한익(2005)은 부모의 온정, 격려, 지원과 가정 내 응집과 돌봄, 양육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부 간 화목 등의 지지적 관계와, 자녀에 대한 믿음과 높은 기대,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재능과 취미를 인정해 주는 태도들은 청소년들에게 빈곤이나 장애, 실패 등의 위험요인이 주는 효과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30년간의 종단적 연구에서 온화한 어머니의 양육이 유연한 청소년들의 중요한 보호요인이었음을 보고하였다(Werner & Smith, 1992). 또한 홍은숙(2006)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 개인적 특징과 환경적 요인들을 고찰한 결과 보호요인은 높은 지능, 긍정적인 자아감, 부모와의 안정적 관계, 올바른 양육방식, 사회적 지원의 가용성 등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2) 탄력성과 관련된 위험요인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은 미래의 비행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개인의 일생에서 부정적인 선행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위험요인들이 청소년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에 선행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되었다(김택호・김재환, 2004). 다음에서는 개인요인과 가정요인으로 나누어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요인 중 개인요인은 신체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혼재되어 각 연구대상자의 특성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신체 및 정신장애, 만성질환 등은 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Hermandez, 1993), 심리적 요인은 충동, 우울성향, 공격성, 일상 스트레스 등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Li & Nussbaum, 2007). 이처럼 개인적 수준의 위험요인은 신체・정신장애, 낮은 지능, 만성질환, 우울성향, 공격・충동 성향 등과 같은 성격특성이나 신체・정신장애 등이 포함된다.

홍은숙(2006)도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아동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 개인적 특징과 환경적 요인들을

고찰한 결과 위험요인은 낮은 지능, 까다로운 기질, 낮은 자존감, 불리한 가정환경,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원체계의 결핍 등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요인은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위험요인의 하나이며, 주로 사회경제적 배경을 의미한다. 경제적 빈곤은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위험요인(Masten, 2001)이며,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낮은 교육수준, 불안정한 직업, 낮은 수입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자녀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은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인지적 기능, 학업성취, 심리사회적 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녕감에도 위협이 된다(김광혁, 2007; DuBois, Felner, Mears, & Krier, 1994; Prelow, Loukas, & Jordan-Green, 2007).

부모의 이혼,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 부모와의 소원한 관계,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부모-자녀 간의 갈등 등도 주요 요인이다. 이처럼 가정환경이나 가족 내 사회적 관계의 질이 청소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빈곤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종단연구를 수행한 Egeland, Carlson과 Sroufe(1993)는 빈곤상황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 부정적 관계가 청소년의 행동, 사회성, 정서, 학업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로 작용함을 밝혔다.

Hermandez(1993)는 청소년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위험요인으로는 학대, 부부간 폭력, 정서적 갈등 등 가족 갈등적 위험 요소가 공통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유성경과 심혜원(2002)도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심리적 보호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탐색한 결과 가정 환경적 위험요소로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의 구조적 결손여부, 사회경제적 지위가 측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위험요인은 위험한 상태의 아동·청소년, 빈곤 청소년, 미혼모,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 무주택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위험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Ahern, 2006). 학교관련 위험요인은 학업성취, 집단따돌림, 무단결석 등이 있으며, 사회 환경적 위험요인은 열악한 주거환경, 빈곤, 지역사회자원의 불균형 등이 있다.

3) 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탄력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탄력적인 사람은 새롭거나 미해결된 상황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불안수준이 낮고 통합적 수행을 지속할 수 있다(Gjerde, Block, & Block, 1986). 또한 탄력적인 사람은 불안에 취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참하고 확실히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며 우울에도 취약하지 않고 부모나 교사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들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스트레스 작용을 완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자원을 활용한다(Hernandez, 1993). 반면 탄력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기 쉽고 적응을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Tellegen, 1985).

이 외에도 탄력적인 사람은 적응을 위해 다양한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과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재빠르고 환경이 허락할 경우 충분히 이완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은 스트레스나 변화로 인한 불안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으며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개입하고 긍정적 정서와 경험에의 개방성을 보인다(Block & Kremen, 1996). 반면 비탄력적인 사람들은 적응적 유연성이 떨어지며 변화나 낯선 상황에 반응하는데 있어 불안해하고 보수적이며 외상적 사건에서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있다(Block & Block, 2006).

Block와 Block(1980)의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탄력적인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더 안정된 성격과 낮은 불안 수준을 보이며 높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자기 수용적일 뿐 아니라 높은 창조성과 또래관계에서의 적절하고 공감적인 정서 표현 능력을 보였다. 한편, 탄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탄력성이 있는 집단이 어떤 영역에서는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부적응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Masten 등(1999)은 탄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Wright, Masten, Northwood와 Hubbard(1997)는 탄력성이 있는 청소년 집단이 유능 집단(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에 비하여 우울, 불안을 더 많이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탄력성의 특성은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데, Block과 Block(2006)은 30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유아기의 탄력성 수준이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특히 유치원시기에 과소통제인 아동은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하는 경향이 높고 유치원시기에 과잉통제된 여자 아동은 청소년기에 우울을 많이 보인다고 했다. 박원주와 이기학(2008)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에 따라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학교 적응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중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탄력집단, 비탄력 과잉통제집단,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하였고, 이들 집단별로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 학교적응 양상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탄력집단은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를 가장 적게 보였으며, 비탄력 과잉통제집단은 내면화문제를,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은 외현화문제를 각각 더 보였으며, 비탄력 과소통제집단의 경우 비탄력 과잉통제집단과 내면화문제의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수현과 최해림(2007)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정도가 높고, 시험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개념

갈등이란 가족 간에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욕구 또는 목표에 당면했을 때 경험하는 긴장상태를 말한다. 인간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상태나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김은향, 2005).

부부란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입장에 서서 서로 기대와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는 신뢰하고 협조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느 집단보다 기본적이고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부부는 성장 시의 가족체계나 문화적인 배경, 성격 및 가치관과 인생경험, 역할기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갈등을 겪는데, 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 건설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국 부부관계의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학대행위와 같은 부정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이찬주, 2009). 이처럼 부부갈등이란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 불일치 정도와 그러한 불일치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대립이나 긴장을 의미한다(Coleman, 1984).

부부갈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권영옥과 이정덕(1997)에 의하면 부부갈등은 매우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고, Davies과 Cummings(1994)는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영주와 서동인 그리고 원효종(2004)은 부부갈등을 표출하는 방법에 따라 파괴적인 갈등과 건설적인 갈등,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첫째, 파괴적 갈등은 암묵적이고 파괴적인 갈등과 공공연하고 파괴적인 갈등을 의미하는데, 암묵적이면서 파괴적인 갈등은 부인(denial), 취소(disqualification), 대치(displacement), 소원함(disengaged), 의사 상호성(pseudomuluality) 중 보통 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은폐된 분노의 표현은 관계를 강화시키기보다는 관계를 와해시킨다. 그리고 공공연하고 파괴적인 갈등은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공격으로 나타난다. 둘째, 건설적 갈등은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갈등이 아닌 생산적 갈등을 의미하며, 미래의 갈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갈등을 보이는 부부들은 공정함, 연속적인 의사소통, 성숙, 발달 및 창의성을 나타내며 갈등을 건설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생기고 분리가 촉진되는 등의 손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부관계는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가족 구성원간 침묵의 벽이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되고 어떤 구성원들은 가족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지내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명확한 거부의 전략인 이혼을 초래하기도 하여 공식적인 관계의 종결을 해결책으로 선택하게 된다.

부부갈등은 건설적 갈등과 같은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파괴적 갈등과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부정적 갈등표출방법은 구체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다툼이나 신체적 폭력과 같은 외적 측정 가능한 형태와, 감정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접촉이 차단되고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언어적 적의나 말다툼, 신체적 학대와 같은 외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를 직접적 부부갈등이라 하고, 회피나 무시, 애정 철회와 같은 소원한 관계를 관계적 부부갈등이라고 한다(노영주 외, 2004). 그러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란 가족구조가 해체되지 않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의 욕구가 상충되거나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외현화되고, 이를 자녀들이 지각하여 그들의 심리적 건강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탄력성과의 관계

가족 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능력을 배우게 되는 자녀들은 부부갈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문제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부갈등은 실제 양상보다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민선현 2008). 이는 부부간의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rych와 Fincham(1993)은 부부간의 갈등상황이 자녀에게 전적으로 해롭지만은 않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는 부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자녀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해결방법이 비효율

적이거나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며,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갈등해결 방법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김경보, 2009).

부부갈등은 부부갈등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녀의 양육문제에 관한 것일 때 자녀의 부적응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며(이혜수・정옥분, 2004), 부부갈등에 대해 자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녀가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지각하면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며 갈등에 대처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 자녀는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Davies & Cummings, 1994).

선행연구들에서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을 매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탐색되었다. 장진아와 신희천(2006)은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수준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킨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영과 박경(2007)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자아탄력성 및 친구관계 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해보고자 연구한 결과 부부갈등을 낮게 지각하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이 친구관계 질의 긍정적 기능을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들은 친구관계 질의 부정적 기능을 높게 지각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정선미와 조옥귀(2009)는 부모갈등의 지각과 학교부적응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수로서 가지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갈등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부모의 갈등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낮추며, 낮아진 자아탄력성은 학교부적응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희와 그의 동료들(2009)은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그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숙(2003)의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연구에서 부모의 품행문제(음주, 구속), 가족 갈

등과 불화(부모의 부부불화, 부모-자녀 갈등), 부모외 가족 문제(조부모 사망, 형제자매 가출 등)와 같은 가정환경 역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 내면화 문제(위축, 우울 및 불안), 외현화문제(비행,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보호요소(자아강도, 부모와의 애착)에 의해서 매개됨이 밝혀졌다.

조계연과 이은희(2007)는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가정환경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고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그들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조사한 결과 첫째, 부와 모의 돌봄 및 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이, 정서·행동문제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와 모의 과보호는 자아탄력성, 정서문제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부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문제행동(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가정에서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자녀를 잘 파악하고 충심으로 돌보는 애정적 양육환경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고 발달시켜서 초기 청소년의 정서 행동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가족은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와 가족유대를 통하여 밀접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서 결국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형성하도록 기여하고, 보호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정희와 유순화(2007)도 부부갈등이 지각되는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심리적 부적응도 더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탄력성이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 특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

가정은 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일차집단으로, 개인이 어린 시절 가정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전 생애 발달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과정에서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행동양식과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김경보, 2009).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여기에는 가출, 언쟁, 신체적 싸움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책략들이 포함된다(장진아・신희천, 2006). 이러한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측면은 격렬한 싸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사이의 유대가 약화되고, 부부 모두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갈등은 가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Davies & Cummings, 1994). 즉,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한 원인으로, 심각한 부부갈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자녀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부갈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표현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김연, 2007; Buehler & Gerard, 2002). 이처럼 부부갈등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는 달리 자신들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시킴은 물론 이려니와 자녀, 부모 등의 다른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정체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여타 이해관계에 얽힌 다른 어떤 갈등보다 더 치명적이며 잠재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할 수 있다(조정혜, 2008). 더욱이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 관계에 있으므로 부부간의 갈등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Grych, Harold, & Miles, 2003).

부부갈등은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Shred, Mcdonnell, Church & Rowan, 1991). 많은 연구들은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아지면 자녀의 품행장애(Long et al., 1988), 학업성취나 적응문제(Emery & O'Leary, 1982)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의 신체적 폭력을 많이 목격한 자녀일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Emery, 1989). 또한 부부갈등은 자녀의 공격성, 반사회성과 비행과 같은 외현화문제나 우울(Peterson & Zill, 1986), 불안, 사회적 고립(Emery & O'Leary, 1984)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더욱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갈등의 빈도와 강도, 해결 여부가 자녀의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 같은 부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Cummings & Cummings, 1988). 이는 갈등의 빈도, 강도 및 해결 여부가 갈등 사건 그 자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들이며, 자녀가 경험하는 보다 즉각적인 스트레스 자극 자원이기 때문이다(Grych, Seid & Fincham, 1992). Fantuzzo 등(1991)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 언어적이건 신체적이건 모두 자녀의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간접적으로는 자녀의 부적응 문제를 유발시킨다(Grych & Fincham, 1990).

부부갈등과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 관한 국내연구를 보면, 이혜수와 정옥분(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자주 목격할수록 자녀의 공격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경진과 조성호(2004)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유의한 설명을 하는 심리적 변수로 가정의 화목도를 지적하였고, 차정은과 이지연 그리고 황상희(2009)는 이혼보다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자녀가 정서와 행동문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의 심각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도록 부모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오영경(2007)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적대적인 집단에게서 더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났고, 부모의 갈등 정도가 높은 집단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서찬란(2005)도 부모와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부모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행동을 취할수록,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수록, 부모의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부부갈등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성차를 보면, 많은 연구들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Emery & O'Leary, 1982; Porter & O'Leary, 1980), 일부 연구들에서는 남아가 부부갈등의 영향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mery & O'Leary, 1982;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이와 같이 초기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었다.

한편, 오영경(2007)은 개인심리와 가족환경 및 사회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는데, 여자청소년은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더 많은 외현화문제를 경험하였다. 또한 남자청소년은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더 많은 내재화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아가 대인관계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부모의 갈등에 남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권영옥, 1998). 또한 남아와 여아 모두 부부갈등에 노출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 연구가 있고(Emery & O'Leary, 1984),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도 있다(Zaslow, 1989).

반면, 부부갈등에 의해 자녀의 심리적 적응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나타내는 문제유형에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다(Grych & Fincham, 1990). 즉, 일부 연구들은 부부갈등에 대해 남아의 경우는 공격성과 행동문제를, 여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축과 불안증상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Block, Block & Gjerde, 1986; Cohn, 1991). 또한 남아와 여아 간에 문제유형이나 그 정도에 있어 성차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Johnson & O'Leary, 1987; Long et al., 1988). 그리고 Cummings, Davies와 Simpson(1994)은 남아의 경우 부모의 갈등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외현화문제(externalizing problems)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여아의 경우는 부모의 갈등에 대해 자책하는 경향이 있어 내면화문제(internalizing problems)를 더 많이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Grych와 Fincham(1990)의 연구, 송은하(2004)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우울, 불안을 제외하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문제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진순(2003)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치된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지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스트레스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stress)라는 용어는 15세기경 영어권에서 압력(pressure), 또는 물리적 압박

(physical strain)의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다가, 20세기부터 질병, 정신질환, 부적응 행동의 원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이보경, 2004). 인간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항상 대처해 나가야 되므로 생활의 변화와 적응이 요구된다. 스트레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당면하는 인간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개인의 대처능력이나 자원을 초과하는 요구가 있을 때 발생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스트레스 징후는 정서와 생리적 반응, 특히 신경 내분비 작용, 심장혈관, 그리고 면역반응들이며,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시도를 하도록 만든다(Weber, 2003). 특히 청소년기는 그 발달 단계적 특성과 맞물려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다. 현대사회와 같이 물질주의의 팽배, 가치관의 혼돈, 경쟁적인 입시제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사회병리학적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이 뚜렷하지 못한 아동과 성인의 주변인(marginal person)인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내외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김미예 · 박완주, 2008).

이러한 스트레스를 대략 세 가지 접근법 즉,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로 분류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첫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 based model of stress)는 환경내의 자극 특징을 스트레스로 보는 개념으로, 외적인 환경적 조건으로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양한 자극들이 포함된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관점이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사건은 자연재해, 해로운 조건, 질병, 해고 등과 같이 환경 속의 사건에 중점을 둔다. 개인에게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 가해져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나치면 긴장하게 되며 인간의 적응능력이 과도하게 요구될 때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둘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 based model of stress)는 개인의 반응에 중점을 두는 관점으로 이전의 평형상태(homeotasis)로 부터의 변화 즉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한다(Cohen, Kessler & Gorcon, 1995). 셋째, 사람과-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이상의 두 가지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개인의 지각적, 인지적, 정서적 매개과정이 심리과정에 근거를 둔 관점으로 개인과 환경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인지적 평가와 대처를 중시하는 접근법이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개념은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체계를 모두 포함하며, 스트레스는 사건의 긴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관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평가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시험성적이나 교사, 부모와의 관계 또는 동성친구나 이성 친구 관계에서 받는 긴장이나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 마다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관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평가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시기보다도 감정과 정서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기는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고, 성인에 비하여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당황하고 이에 적응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한희진・윤미선, 2009).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주요 스트레스로 학교와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며, 그 중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한다(신정이・황혜원, 2006).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성적문제가 있는데, 청소년은 성적 그 자체보다도 성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친구와의 경쟁관계,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험점수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교육방식으로 인해 시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이미애, 2006).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친구 및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영향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이전의 발달시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친구의 수가 많아지고, 개인시간의 반 이상을 친구들과 보내기 때문에 자신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경험을 고유해 가는 친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이정미, 2005).

기존 연구들에 나타난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펴보면 비만(김이순・김영혜 , 2001)과 가정폭력(조춘범, 2006), 신체, 친구, 가족, 교사(나명순・손주하・박소정, 2009), 학업(정의숙・김갑숙, 2008),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이근북・정우석, 200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윤정과 이시연(2007)의 연구에서는 학업영역, 부모영역, 주변환경영역 순서로 나타났으며, 고재홍과 윤경란(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5가지 생활

스트레스 원 중 어떤 것이 자살생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 중 자기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가족관계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환경문제스트레스, 교우관계스트레스 순서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동성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신체변화 등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하며, 사회문제, 진학문제, 이성문제, 가정문제, 용돈문제 등과 관련해서 경험하기도 한다(엄경순, 2004). 한태영(2005)은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이 높은 학생은 스트레스를 보다 적게 지각하였으며,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도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업, 친구,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Williams와 Pow(2007)는 영국 십대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성차 여부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고재홍과 윤경란(2007)도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Byrne 등(2007)의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남자청소년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mpel과 Petermann(2006)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대인관계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Brooks 등(2002)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2) 스트레스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탄력성 및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1) 스트레스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의 관계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속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이 부부갈등이다. 즉 부부 갈등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 자극이면서 정서적 위협인 것이다. 그래서 부부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Grych & Fincham, 1990), 부부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는 더욱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

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진다(Cummings & Cummings, 1988). 부부갈등을 자녀가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고, 자녀는 비효율적인 대처반응을 보인다. 즉 자녀가 부모간의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므로 긴장과 불안을 느끼며, 더 나아가 정신 병리적인 문제까지 가질 수 있다(Jenkins et al., 2005)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부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조롱하고 냉소적인 상호작용을 사용하는 것을 자녀가 보게 된다면 더 큰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Katz & Gottman, 1993). 부부갈등의 특성 중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부부갈등 해결의 정도인데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목격한 자녀는 그렇지 못한 자녀에 비해 공격성과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부정적 감정은 감소된다. 즉, 부부갈등이 해결된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부적응은 줄어든다((Cummings, Simpson & Wilson, 1993). 즉 부부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존중하며 정서적으로 잘 조절된 목소리로 갈등을 표현하거나(Easterbrooks, Cummings & Emde, 1994), 그 내용이 건설적이며 갈등이 충분히 해결된 경우에는 자녀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권영옥 · 이정덕, 1997).

(2) 스트레스와 탄력성과의 관계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스트레스 이전상황보다 더 건강해 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맞아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성(resilience)은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영향을 덜 받으며, 유능감(efficacy)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Luthar, 1991). Henderson과 Milstein(1996)은 탄력성이란 성인과 아동이 자신의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 외상, 위험에서 회복하는 방

식이라고 했다.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데 반해,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여 적응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높은 자신감으로 인해 안정되어 있으며 불안하지도 않으며,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다. 그리고 낯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략에 집중하는 것을 강화하는 행동적인 래퍼토리와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융통성의 더 큰 결과로서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Block, 1982). 따라서 적응유연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저변에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완충해 줄 수 있는 '관계적 쿠션'이라고 할 수 있다(유성경 · 심혜원, 2002).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이나 심리적 행복, 안녕감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보다 이에 반응하는 대처로, 이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신체적 안녕 및 행동적,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신현숙 · 구본용, 2001). 대처(coping)란 스트레스 상황의 성공적인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내외적인 요구들을 다루어가기 위한 모든 목적적인 시도를 포함하는 과정들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과 평가 이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적응양상은 청소년기 이후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Goldberger & Breznitz, 1982),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대처능력으로 볼 수 있다.

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윤자(2005)는 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반면에 탄력성이 낮은 아동은 외적 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가정이나 학업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며, 이로 인해 학교적응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구자은(2000)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반응인 정서성과 상황적인 요구에 알맞은 융통성있는 행동과 문제해결책략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인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연수(2003)의 연구에서도 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주연(2003)은 사회적 지지나 부모양육태도가 좋지 않더라도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임상희(2005)는 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보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희진과 윤미선(2009)는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친구 및 생활스트레스와 휴대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홍과 윤경란(2007)은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연구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생각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김교헌과 권선중 그리고 심미영(2005)은 아동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증상 간의 관계 및 그 관계를 중재하는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한 결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시험스트레스 및 신체증상(소화기 증상, 두통, 불면증)을 더 적게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의 탄력성은 스트레스상황에서 적응적인 성격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장경문, 2003).

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애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하나, 탄력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조절 능력이 낮아서 낯선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Klohnen, 1996). 또한 탄력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기 쉽고 적응을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환경적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Tellegen, 1985).

(3) 스트레스와 정서 · 행동문제와의 관계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경우 인간의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없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되면 인간에게 심리적, 생리적, 행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Roberts(1981)에 따르면 초기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단

계에서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쉬우며 현실 적응 사이에서 과중한 스트레스 노출의 긴장과 혼동을 경험하며 특히 낮은 자아와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은 부적절한 대처방법으로 약물남용, 음주, 그리고 가출과 같은 비행행동을 이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성장과 발달에 따른 결과로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들을 배울 때에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유정선・이정숙, 2004).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 놓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과 부모 또는 교사의 높은 기대와 요구, 또래와의 치열한 경쟁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한희진・윤미선, 2009).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미처 배우기도 전에 변화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불안과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고 심한 경우 정서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가출, 폭력,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즉,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준다(유정선・이정숙, 2004).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발달적, 심리적 특성으로 볼 때 매우 많은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장 혼란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청소년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적인 피로감, 신경성 질병,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청소년 문제의 상당부분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한다(염행철・조성연, 2007).

한편, 한국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점수는 학업, 부모, 친구, 외모 및 물질 등의 영역 중 학업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은미・정성석, 2009). 이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노숙영(1998)은 남자중학생이 교사관계와 수업태도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자중학생은 교우관계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위축, 사회적 미성숙문제 등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경험한다(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는 것이다. 김선희와 김경연(2001)은 학교생활에서 아동이 또래나 교사로부터 배척되거나 거부되는 경험으

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구자경(2004)은 학업성적은 신체화,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교사의 공정성, 정서적 지지 및 교사에 대한 적대감, 존경심에 따라 심리적 증상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자기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행동기준에 동조하려 한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가능한 한 그 집단에 소속되어 같이 어울리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옷, 머리모양, 행동 등을 또래집단과 똑같이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부모의 명령이나 조언에 반발하거나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부모나 교사에 비해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비슷한 연령의 친구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다(이은희 · 공수자 · 이정숙, 2004). 또한 친구로부터의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 반대로 친구의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행동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영희 · Edwards, 2004). 이창호와 그의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서 불안의 경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정경택(2003)의 연구는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폭행, 간접공격, 부정성, 흥분성 및 공격성 전체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공격성을 포함한 내면화문제를 다룬 한태희와 홍상황(2004)의 연구에서도 내면화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가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리(2009)는 4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내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social-causation hypothesis)과 내면화 문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social-selection hypothesis)을 하나의 연구모형을 통해 동시에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와 내면화 문제는 상호영향의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명확히 산출하였다. 즉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가 높아지고 동시에 내면화 문제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 65개 남녀공학 중학교 중에서 2개교를 편의표집하여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 2학년 학생(약 8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 1,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학생 3학년과 고등학생보다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고, 발달적으로 부모의 갈등과 스트레스 등의 뚜렷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독립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선정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8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728부(91%)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반응을 검토하여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를 무효자료로 처리하였다.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의 기준은 질문지의 한 페이지 이상에서 한 가지 반응에만 편향 표기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경우, 또한 한 문항에 두개를 응답한 경우와 부부가 없는 가정, 그리고 그 외 신뢰성이 의심되는 반응이었다. 따라서 637부(80%)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표 Ⅲ-1>에는 최종 연구대상에 대한 기초사항이 제시되어있다. <표 Ⅲ-1>에 보이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은 333명(52.3%), 여학생은 304명(47.7%)이었으며, 1학년은 280명(44%), 2학년은 357명(56%)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졸 99명(15.5%), 대학교졸 382명(60%), 고등학교 졸업이하 156명(24.5%)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졸 72명(11.3%), 대학교졸 347명(54.5%), 고등학교졸업이하 218명(34.2%)이었다. 가정경제수준은 학비 및 급식비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0명(23.5%), 학비 및 급식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487명(76.5%)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 199명(31.2%), 천주교 70명(11%), 불교 77명(12.1%), 종교 없음 278명(43.7%), 기타 13명(2%)이었다. 가족형태는 대가족 43명(6.8%), 핵가족 594명(93.2%)이었으며, 형제유무는 형제가 있는 경우 591명(92.8%), 형제가 없는 경우 46명(7.2%)이었다.

<표 Ⅲ-1> 연구대상의 기초사항(N=637)

특성	구분	사례수(n)	비율(%)
성 별	남	333	52.3
	여	304	47.7
	계	637	100.0
학 년	1학년	280	44.0
	2학년	357	56.0
	계	637	100.0
아버지 교육수준	대학원졸	99	15.5
	대학교졸	382	60.0
	고등학교졸업이하	156	24.5
	계	637	100.0
어머니 교육수준	대학원졸	72	11.3
	대학교졸	347	54.5
	고등학교졸업이하	218	34.2
	계	637	100.0
학비 및 급식비 서비스 유무	유	150	23.5
	무	487	76.5
	계	637	100.0
종 교	기독교	199	31.2
	천주교	70	11.0
	불교	77	12.1
	없음	278	43.7
	기타	13	2.0
	계	637	100.0
가족형태[1]	대가족*	43	6.8
	핵가족*	594	93.2
	계	637	100.0
형제유무	유	591	92.8
	무	46	7.2
	계	6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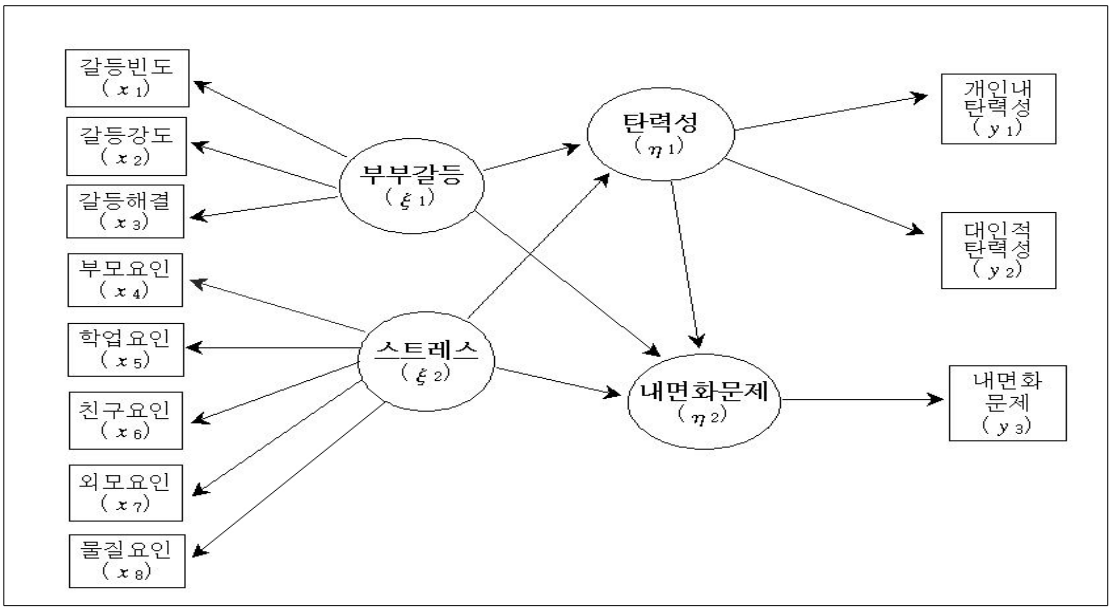
[1] *대가족: 3대 이상의 직계친(直系親)이나 방계친(傍系親)을 포함하여 구성된 가족
*핵가족: 부부와 미혼의 자녀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가족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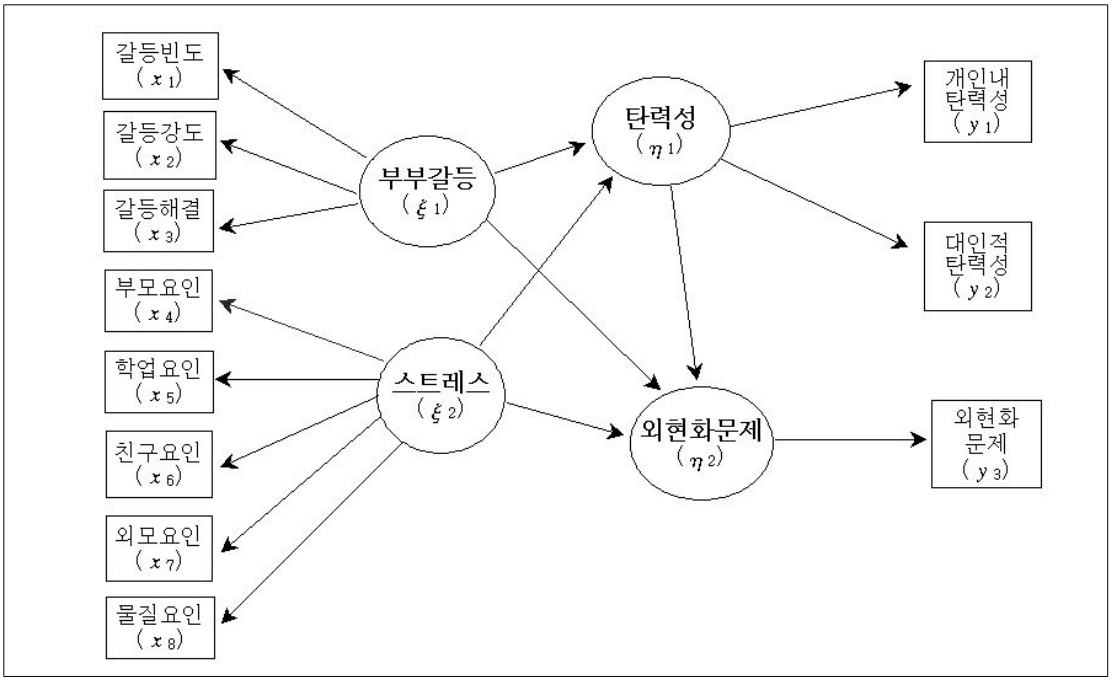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있는데, 외생변수는 영향을 받지는 않고 주기만 하는 변수를 말하며,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나, 영향을 받기만 하는 변수를 말한다. 흔히 통용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해 보면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같다. 그러나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는 매개변수와 영향을 받기만 하는 종속변수 모두 포함한다(이기종, 2005). 본 연구에서는 <표 Ⅲ-2>와 같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는 외생변수에 그리고 탄력성과 내면화문제(모형 1), 외현화문제(모형 2)는 내생변수에 해당한다. 내생변수 중에서 탄력성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스트레스와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 매개변수이고, 내면화문제(모형 1)와 외현화문제(모형 2)는 최종적인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잠재변수와 관찰변수가 있는데, 잠재변수는 직접적으로 관찰 또는 측정할 수 없는 변수이며 관찰변수를 통해 측정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외생변수이면서 잠재변수인 경우 외생잠재변수라고 하는데 이는 내생변수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외생잠재변수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이며, 내생잠재변수는 탄력성 및 내면화문제(모형 1)와 외현화문제(모형 2)이다. 또한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해결, 부모요인, 학업요인, 친구요인, 외모요인, 물질요인은 외생잠재변수의 관찰변수이며, 개인내적탄력성, 대인적탄력성,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내생잠재변수의 관찰변수이다. 이와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적 연구모형은 〔그림 Ⅲ-1〕 및 〔그림 Ⅲ-2〕 와 같다.

<표 Ⅲ-2 > 변수의 종류

외생/내생변수 (exogenous/endogenous variable)	잠재변수 (latent variable)	관찰변수 (observed variable)
외생변수	부부갈등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해결
	스트레스	부모요인
		학업요인
		친구요인
		외모요인
		물질요인
내생변수	탄력성	개인내적 탄력성
		대인적 탄력성
	내면화문제(모형 1)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모형 2)	외현화문제



〔그림 Ⅲ-1〕 내면화문제 연구모형(모형 1)



〔그림 Ⅲ-2〕 외현화문제 연구모형(모형 2)

3. 변수와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듯이 연구대상에 대한 7개 기초사항문항과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들로 구성되었다. <표 Ⅲ-3>은 본 연구의 변수와 측정도구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각 측정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변수와 측정도구

변 수		측정도구			
잠재변수	관찰변수	도구명	하위척도	문항수	총문항수
부부갈등	갈등빈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CPIC)	갈등빈도	6	19
	갈등강도		갈등강도	7	
	갈등해결		갈등해결	6	
스트레스	부모요인	스트레스 척도 (Stress Scale)	부모요인	4	17
	학업요인		학업요인	4	
	친구요인		친구요인	3	
	외모요인		외모요인	3	
	물질요인		물질요인	3	
탄력성	개인내적탄력성	한국판 청소년 탄력성 척도(K-ARS)	개인내적탄력성	24	48
	대인적탄력성		대인적탄력성	24	
내면화문제	내면화문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K-YSR)	내재화문제	33	32
외현화문제	외현화문제		외현화문제	30	30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사용하였다. CPIC는 3개요인 즉 갈등특성요인에 빈도, 강도, 해결의 하위척도와 갈등위협요인에 지각된 위협, 대처효율성, 삼각관계의 하위척도 그리고 갈등자책요인에 내용, 자기비난, 안정성의 하위척도로 3개요인, 9개

하위영역,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44문항 가운데 갈등특성요인에 해당되는 '빈도' 6문항, '강도' 7문항, '해결' 6문항의 총 19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갈등의 특성 요인인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이 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유해한 측면들이라는 선행연구(Cummings & Cummings, 1988; Grych et al., 1992)의 결과들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점수를 산출한다. 각 문항을 역코딩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빈도	1, 4, 7, 8, 11*, 14	6	.71
강도	3, 6*, 10, 13, 15*, 16, 18	7	.85
해결	2*, 5, 9*, 12*, 17*, 19	6	.84
전 체		19	.91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2)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개발한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의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에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를 수행하기 위해 수정하여 사용한 청소년용 질문지의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자기보고식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그런적 없다(1점)', '거의 그렇지 않는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분포는 1~8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은미와 정성석(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5>와 같다.

<표 Ⅲ-5>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부모 요인	1, 2, 3, 4	4	.84
학업 요인	5, 6, 7, 8	4	.75
친구 요인	9, 10, 11	3	.77
외모 요인	12, 13, 14	3	.70
물질 요인	15, 16, 17	3	.77
전 체		17	.87

3) 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이해리와 조한익(2005, 2006)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탄력성 척도(Korean Adolescents Resilience Scale: K-ARS)를 탄력성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개인내적 탄력성과 대인차원 탄력성 2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마다 4개 하위요인씩 총 8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로 6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별로 아니다(3점)', '조금 그렇다(4점)', '대체로 그렇다(5점)',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 2개를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

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해리(2007)가 검증한 전체 문항 신뢰도는 Cronbach α=.91이었고, 요인별 신뢰도는 .81～.59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6>과 같다.

<표 Ⅲ-6> 탄력성 척도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Ⅰ. 개인내적 탄력성				
1. 인지적 차원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18, 23, 48 28, 33, 37	3 3	.77
2. 정서적 차원	감정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4, 41, 45 9, 14, 19	3 3	.70
3. 의지적 차원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38, 42, 46 24, 29*, 34	3 3	.72
4. 영성적 차원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	5, 10, 15 20, 25, 30	3 3	.78
		계	24	.90
Ⅱ. 대인적인 탄력성				
1. 가정 차원	돌봄 적극적 상호작용	31, 35, 39 2*, 43, 47	3 3	.82
2. 학교 차원	돌봄 적극적 상호작용	1, 6, 11 7, 12, 17	3 3	.87
3. 또래 차원	돌봄 적극적 상호작용	3, 8, 13 36, 40, 44	3 3	.70
4. 지역 차원	돌봄 적극적 상호작용	16, 21, 26 22, 27, 32	3 3	.69
		계	24	.87
전 체			48	.93

*표시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4)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 (오경자 외, 2001)의 내재화문제척도와 외현화문제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 Report를 오경자 등(2001)이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K-YSR은 사회능력 척도와 행동문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동문제 척도에 해당하는 6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면화문제척도는 위축 7문항, 신체증상 10문항, 우울/불안 16문항으로 총 33문항이며, 외현화문제척도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51번 문항은 위축척도와 우울/불안척도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합산 시 한 번 빼주어서 산출해야 하므로 총 문항은 62문항이다. 각 문항은 학생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에 보인 행동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점하게 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영역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내면화문제 .87과 외현화문제 .8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 α는 .60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양옥승, 1997).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7>과 같다.

<표 Ⅲ-7>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척도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척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내면화 문제 척도	위축	20, 30, 33, 37, 50, 51*, 54	7	.68
	신체 증상	24, 26, 29(1-8)	10	.77
	우울/불안	3, 4, 6, 13, 14, 15, 16, 17, 22, 23, 25, 34, 42, 44, 51*, 55	16	.80
전 체			32	.87
외현화 문제 척도	비행	11, 19, 21, 28, 31, 35, 38, 39, 43, 49, 53,	11	.60
	공격성	1, 2, 5, 7, 8, 9, 10, 12, 18, 27, 32, 36, 40, 41, 45, 46, 47, 48, 52	19	.81
전 체			30	.84

*표시된 문항 51은 위축척도와 우울/불안척도에 공통으로 포함되므로 합산 시 한 번 빼주어서 산출한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편의표집된 2개 남녀공학중학교의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록>에 제시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09년 11월에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사항 질문지를 제외한 5종의 측정도구들은 순서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3유형으로 편집하여 인쇄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설문지 작성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G시내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에 예비조사를 수행한 결과 작성소요시간은 총 20~30분정도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1월 중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에 동의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담임교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7일간에 걸쳐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본 조사 실시기간 동안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으며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800명의 학생들에게만 집단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한 총 800부의 설문지 중 728부(91%)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반응을 검토하여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를 무효자료로 처리하였다.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의 기준은 질문지의 한 페이지 이상에서 한 가지 반응에만 편향 표기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경우, 또한 한 문항에 두개를 응답한 경우와 부부가 없는 가정, 그리고 그 외 신뢰성이 의심되는 반응이었다. 그 결과 최종 유효자료로 확정된 637부(80%)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프로그램 17.0과 LISREL 프로그램 8.8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별·학년·부모의 학력·가정의 경제수준·종교

·가족형태·형제유무 등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사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들은 개발과정에서 타당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뢰도만 분석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재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서 측정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즉 측정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하였느냐의 문제이다. 신뢰도 계수의 추정방법에는 재검사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와 동형검사신뢰도(parallel-farm reliability), 반분검사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가 있다(성태제, 2010). 본 연구에서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간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Cronbach α)는 .60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양옥승, 1997).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들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변수들의 기초통계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표 Ⅲ-8>은 각 변수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왜도(편포도), 첨도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만족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적합도 지수인 χ^2의 해석과 모수 추정방식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우선 적합도 지수인 χ^2를 유의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다변량정규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χ^2값은 관찰변수들의 다변량정규성으로부터의 이탈에 민감하고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분포에서는 χ^2값이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값이 된다(양병화, 2006).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며, 조합된 변수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이루며, 모든 이변량산점도는 선형이며, 동분산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3개나 그 이상의 변수에 대해 결합빈도분포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다변량정규분포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변량비정규성은 일변량분포의 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일변량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첨도와 왜도값을 점검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다만 어느 정도의

비정규성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몇 가지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첨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보통 첨도의 절대값이 8.0~20.0까지를 극단적인 첨도라고 제안하고 있다(최수정, 2007). 본 연구에서 일변량정규성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의 왜도(편포도)와 첨도값이 절대값 1 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모수추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므로 모든 단일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Ⅲ-8> 관찰변수들의 기초 통계치

잠재변수	관찰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부갈등	갈등빈도	637	6	28	14.97	4.44	.38	-.35
	갈등강도	637	7	35	17.41	6.02	.40	-.40
	갈등해결	637	6	30	13.79	4.85	.39	-.35
스트레스	부모요인	637	4	20	11.69	3.97	.10	-.71
	학업요인	637	4	20	12.61	3.75	-.05	-.57
	친구요인	637	3	15	5.54	2.53	.99	.75
	외모요인	637	3	15	7.00	3.08	.42	-.66
	물질요인	637	3	15	6.64	3.09	.58	-.42
탄력성	개인내적탄력성	637	29	132	89.82	18.49	-.30	.17
	대인적탄력성	637	30	135	85.68	18.35	-.05	-.23
내면화문제	내면화문제	637	29	78	50.50	9.04	.31	-.35
외현화문제	외현화문제	637	27	82	51.59	8.98	.20	.13

넷째, 성별에 따른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통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독립표본 *t* 검정(two-independent sample: *t*-test)이란 각기 다른 두 모집단의 속성인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들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모집단간의 유사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t*-test는 두 표본 집단의 등분산성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그러므로 두 독립표본 *t*-test 전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t*-test는 두 집단의 평균 비교이나 두 종속표본의 짝 비교가 아니므로 한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평균과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평균을 비교한다. 그러므로 두 표본의 평균 차이가 크면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된다(성태제, 2010). 분석에 있어 유의수준은 인문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t*-test에 적용하는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와 탄력성 그리고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하였다. Pearson 적률 상관은 두 변수가 연속성을 띠고, 관계가 직선 성을 가질 때만 타당하게 두 변수 간의 연합의 정도를 반영한다(이기종,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치는 모두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은 타당한 방법이다.

여섯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및 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면화문제 모형과 외현화문제 모형 별로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모형안에서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과 잠재변수의 관찰변수에 대한 가설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 주는 통계기법이다(이기종, 2005). 또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다변량 분석으로서 구체적인 분석과정 및 전제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상관행렬을 사용하였다. 상관행렬은 공통의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형내의 계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상관행렬은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누어줌으로써 각 변수의 측정척도의 영향을 제거하

며 표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관행렬은 Pearson 적률 상관계수 값을 사용하였다.

②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 모수 추정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택하였다. 최대가능법은 실제로 관찰된 표본자료와 여러 개의 잠정적 모집단 추정 값 간의 차이를 계량화하여, 값의 차이가 표집변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최대가 되는 모집단 추정 값을 모집단의 모수 값이라고 선택하는 것이다. 최대가능법으로 모집단 모수값을 추정하려면 충족되어져야 할 전제조건은, 사용된 변수가 연속적이어야 하고 다중변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다중변수 분포가 정상분포임을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각 변수의 단일변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다중변수 분포가 정상이면 모든 변수의 단일변수 분포는 정상분포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모든 단일변수 분포가 정상분포이어도 이것들이 같이 모여 이루는 다중변수분포는 정상분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이기종, 2005). <표Ⅳ-2>에서 제시된 왜도(편포도)와 첨도는 단일변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정상분포에 대한 필요조건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찰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최대가능법은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③ 구조방정식모형 추정에 적용하는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 평가를 위한 유의수준은 평가지수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통계검증을 통한 모형평가 지수인 χ^2값은 실험연구와 같은 다른 통계검증이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에 비해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론적으로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모형과 잘 합치된다는 영가설에 초점을 두므로 영가설을 수용하는데 의미를 갖는다(이기종, 2005). 따라서 실험연구에서와 같은 통계검증을 위해 설정되는 .01이나 .05보다는 큰 값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설정되는 유의수준은 대개 .30이상이며 때로는 .50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값이 설정되기도 한다(이기종, 2001).

ⓑ 표본공분산행렬이 모형공분산행렬에 의해 예언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GFI는 예언되어지는 정도를 1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합치정도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이기종, 2005).

ⓒ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은 수집된 자료에서 표출된 표본공분산행렬은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RMR이 .05보다 작으면 양호하다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 기준이며 절대적 지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이기종, 2005).

ⓓ 규준합치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주어진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모형인 기초모형이 갖는 합치함수의 값에서, 기초모형보다는 자료와 더 잘 합치하는 모형이 갖는 합치함수의 값을 뺀 것을, 기초모형의 합치함수의 값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자료와 더 잘 합치하도록 모형을 재설정 했을 때 재설정된 모형이 합치함수 값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가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NFI의 값이 .95 이상일 때 의미를 갖는다(이기종, 2005).

ⓔ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비규준합치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10 보다 작으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Ⅳ.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라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two-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에 보이듯이 남자청소년 관련 4개 변수와 여자청소년 관련 4개 변수 중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스트레스와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스트레스 변수 중 친구요인에서(남 M=5.76, 여 M=5.31, t=2.24)는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부모요인(남 M=11.27, 여 M=12.14, t=-2.80), 학업요인(남 M=12.21, 여 M=13.04, t=-2.80), 외모요인(남 M=6.17, 여 M=7.90, t=-7.37), 물질요인(남 M=6.00, 여 M=7.33, t=-5.59)에서는 모두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점수가 높았다. 또한 탄력성에서도 개인내적 탄력성(남 M=87.48, 여 M=92.39, t=-3.38), 대인적 탄력성(남 M=84.20, 여 M=87.30, t=-2.14)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실제로 차이는 아주 작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 성별에 따른 관찰변수들의 차이분석 결과(N=637)

변 수		성별	*n*	*M*	*SD*	*t* 값
잠재변수	관찰변수					
부부갈등	갈등빈도	남	333	14.75	4.20	-1.27
		여	304	15.20	4.69	
	갈등강도	남	333	17.39	5.85	-.06
		여	304	17.42	6.21	
	갈등해결	남	333	13.77	4.70	-.08
		여	304	13.80	5.01	
스트레스	부모요인	남	333	11.27	3.97	-2.80*
		여	304	12.14	3.93	
	학업요인	남	333	12.21	3.54	-2.80*
		여	304	13.04	3.93	
	친구요인	남	333	5.76	2.63	2.24*
		여	304	5.31	2.40	
	외모요인	남	333	6.17	2.74	-7.37*
		여	304	7.90	3.18	
	물질요인	남	333	6.00	2.86	-5.59*
		여	304	7.34	3.17	
탄력성	개인내적 탄력성	남	333	87.48	19.51	-3.38*
		여	304	92.39	16.96	
	대인적 탄력성	남	333	84.20	18.38	-2.14*
		여	304	87.30	18.20	
내면화문제	내면화문제	남	333	50.75	8.96	.74
		여	304	50.21	9.14	
외현화문제	외현화문제	남	333	51.61	8.70	.05
		여	304	51.57	9.29	

*p<.05.

2.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등 4가지이고, 각각의 잠재변수들은 1~5개의 관찰변수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찰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Ⅳ-2>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2>에 보이듯이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261~.74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는 음영처리를 통해 구분하였다. 잠재변수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에서 갈등해결과 학업요인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탄력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외모요인과 개인내적탄력성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와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표 Ⅳ-2> 관찰변수들의 상관관계

관찰변수	x_1	x_2	x_3	x_4	x_5	x_6	x_7	x_8	y_1	y_2	y_{31}	y_{32}
갈등빈도(x_1)	1.000											
갈등강도(x_2)	.743**	1.000										
갈등해결(x_3)	.655**	.678**	1.000									
부모요인(x_4)	.320**	.284**	.212**	1.000								
학업요인(x_5)	.164**	.133**	.076	.532**	1.000							
친구요인(x_6)	.187**	.205**	.145**	.256**	.317**	1.000						
외모요인(x_7)	.168**	.146**	.094*	.325**	.386**	.340**	1.000					
물질요인(x_8)	.266**	.239**	.207**	.431**	.353**	.317**	.495**	1.000				
개인내적탄력성(y_1)	-.147**	-.200**	-.261**	-.204**	-.213**	-.095*	-.076	-.155**	1.000			
대인적탄력성(y_2)	-.191**	-.227**	-.332**	-.280**	-.196**	-.105**	-.094*	-.208**	.751**	1.000		
내면화문제(y_{31})	.260**	.226**	.205**	.341**	.330**	.369**	.295**	.342**	-.222**	-.297**	1.000	
외현화문제(y_{32})	.241**	.236**	.171**	.306**	.235**	.182**	.219**	.308**	-.167**	-.211**	.585**	1.000

*p<0.5. **p<.01.

3. 정서 · 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인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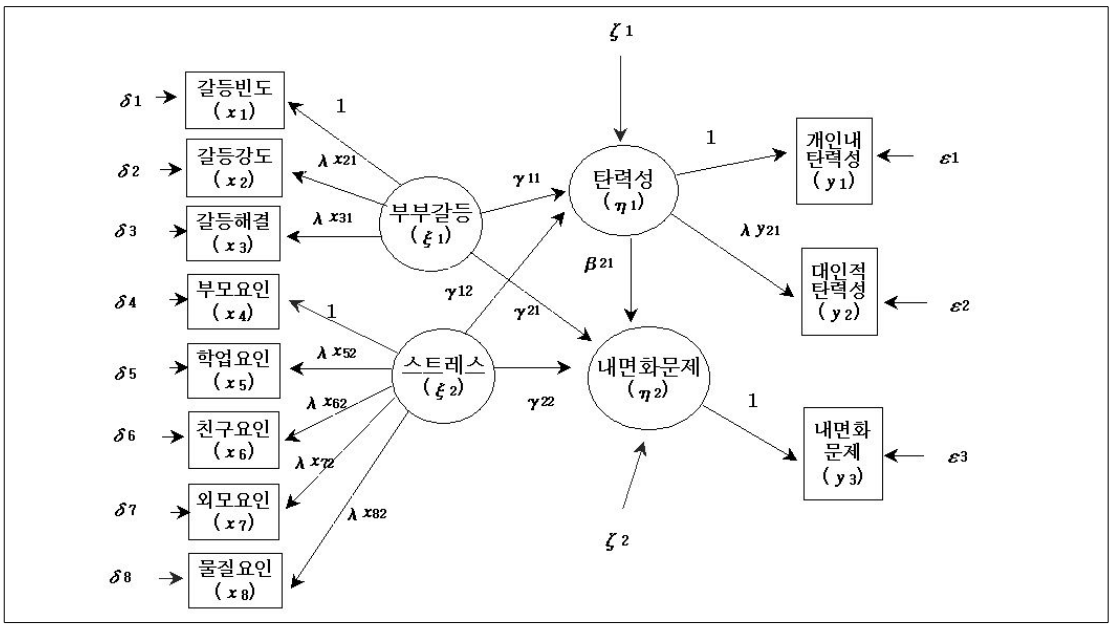
1) 구조방정식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모형과 잠재변수모형(구조모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측정모형은 잠재변수와 관찰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잠재변수와 관찰변수 및 오차변수로 구성된다. 측정모형은 요인분석과 유사하나 요인분석에서는 많은 관찰변수가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약되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측정모형에서는 잠재변수가 어떤 관찰변수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둔다. 각 관찰변수에서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나머지를 측정오차라 한다(성태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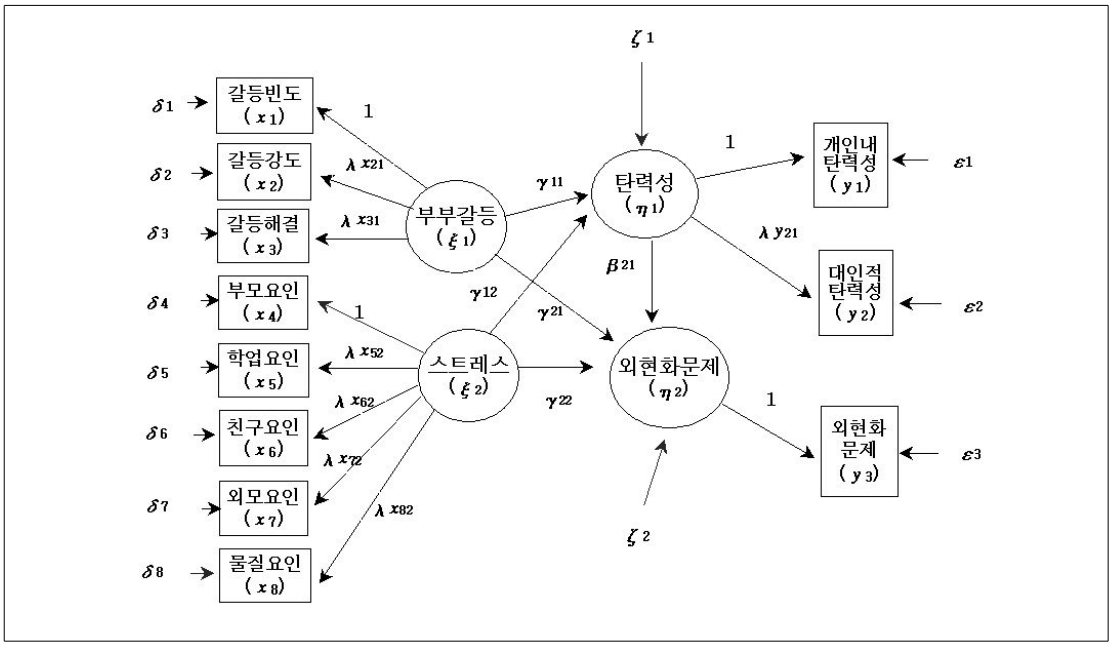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정서 · 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의 4가지 잠재변수들을 가진 하나의 측정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11개의 관찰변수가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갈등강도, 갈등빈도, 갈등해결, 스트레스는 부모요인, 학업요인, 친구요인, 외모요인, 물질요인이었다. 탄력성은 개인내적 탄력성과 대인적인 탄력성으로 구분되며, 정서 · 행동문제는 내면화문제(모형 1)와 외현화문제(모형 2)로 구분된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경우 잠재변수를 포함한다. 잠재요인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므로 측정단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임의성에 제약을 주기 위해 관찰변수 가운데 하나의 경로를 1로 설정하였다. 즉 잠재요인에 적재되는 관찰변수 중 한 변수의 계수를 1로 설정하여 개념간의 상대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성태제, 2010).

또한 잠재변수모형은 잠재변수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경로분석과 회귀분석의 형태를 나타낸다. 잠재변수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개의 측정문항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성되는 변수이다. 잠재변수모형은 외생잠재변수와 내생잠재변수 및 오차변수로 구성된다. 잠재변수모형을 구성하는 각각의 방정식에서 내생잠재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변수들의 영향을 나타낸다. 즉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으로 이를 설명오차라 한다(성태제, 2010).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잠재변수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내면화문제(모형 1), 외현화문제(모형 2)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은 [그림 Ⅳ-1]과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1〕 내면화문제 구조방정식모형(모형 1)



〔그림 Ⅳ-2〕 외현화문제 구조방정식모형(모형 2)

2) 구조방정식모형 평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도 추정치들은 이론모형이 표본자료와 얼마나 잘 합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형 분석결과에는 다양한 적합도 추정치들이 제공된다. 어느 적합도 지수가 가장 좋은가에 관한 최종적인 언급은 현재 없으며, 적합도 지수 선택은 검정되는 특정 모형, 요인 부하의 크기, 표본 크기에 어느 정도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수의 적합도 지수들이 사용되고 있다(Finch & West, 1997).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χ^2, RMR, GFI, AGFI, NFI, NNFI, RMSEA이다. 구조모형의 평가지수인 Chi-square(χ^2)는 이론에 의해 설정되는 영가설은 이론에 의해 설정된 모형이 시사하는 모형공분산행렬이 모집단 변수들의 관계를 반영하는 모집단공분산행렬에 들어맞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설정된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공분산행렬은 모집단에서의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분산행렬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가설이 맞는다면 χ^2값은 0이 된다. 또한 실험연구와 같은 다른 통계검증은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론적으로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모형과 잘 합치된다는 영가설에 초점에 두므로 영가설을 수용하는데 의미를 갖는다(이기종, 2005). 따라서 구조모형 평가에 있어 χ^2값이 크고 확률값이 유의하게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χ^2는 내면화문제(모형 1)가 184.39(p=.00)이고, 외현화문제(모형 2)가 169.86(p=.0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χ^2는 사례수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례수가 클 경우 다른 평가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배병렬, 2006).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은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표본공분산행렬은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차이므로 그 값이 작을 때 적합한 모형이 되고, 그 값이 커질수록 모형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MR이 .05보다 작으면 양호하다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 기준이며 절대적 지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이기종, 2005). 본 연구에서 두 모형의 RMR은 각

각 내면화문제(모형 1)는 .05이고 외현화문제(모형 2)는 .04로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적합도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수집된 자료에 설정된 모형이 얼마나 잘 합치하는가를 평가할 때 쓰이는 지표로서, 표본공분산행렬이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된 모집단 공분산행렬에 의해 예언되는가를 나타낸다. 표본공분산행렬의 분산과 공분산이 이에 대응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원소들로 예측되어지는 정도를 1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합치도 지수이다(이기종, 2005). GFI의 범위는 0~1사이의 값을 갖지만 음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GFI가 음수이면 모형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χ^2값과는 달리 표본 크기나 다변량 정상성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90으로 볼 때, 두 모형은 각각 내면화문제(모형 1)는 .96이고 외현화문제(모형 2)는 .95로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규준합치지수(Normed fit index: NFI)는 주어진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모형인 기초모형이 갖는 합치함수의 값에서, 기초모형보다는 자료와 더 잘 합치하는 모형이 갖는 합치함수의 값을 뺀 것을, 기초모형의 합치함수의 값으로 나누어준 것으로, 자료와 더 잘 합치하도록 모형을 재설정 했을 때 재설정된 모형이 합치함수 값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가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NFI의 값이 .95 이상일 때 의미를 갖는다(이기종, 2005). 본 연구에서의 NFI 값은 두 모형 모두 .95이므로 의미를 갖는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선호하는 지수로 알려진 비규준합치지수(Non-normed fit index: NNFI),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NN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10 보다 작으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이와 같은 기준에 적용시켜볼 때, 본 연구에서의 NNFI값은 두 모형 모두 .94이고, RMSEA값은 두 모형 모두 .07로 적당한 적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Ⅳ-3>과 같이 관찰변수 11개와 잠재변수 4개로 설정한 내면화문제(모형 1), 외현화문제(모형 2)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치도 지수를 자

세히 살펴보면 χ^2지수에서 적합한 모형이라는데 약간의 한계를 갖기는 하지만 그 외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구조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Ⅳ-3>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구조모형	χ^2	*df*	RMR	GFI	NFI	NNFI	RMSEA
모형 1	184.39(p =.00)	39	.05	.96	.95	.94	.07
모형 2	169.86(p =.00)	39	.04	.95	.95	.94	.07

3)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정이 충족되고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각각의 추정치를 확인하여 변수간의 영향력 또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Ⅳ-4>와 <표 Ⅳ-5>는 측정 모수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관찰변수 중 한 변수를 1로 고정하였다. 관찰변수 값을 1로 고정하는 것은 잠재변수가 설명 가능한 척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1로 고정된 참조변수는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관찰변수들의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과에 제시되었듯이 외생변수에서는 갈등빈도와 부모요인이 참조변수이며, 내생변수에서는 개인내적탄력성과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가 참조변수이다. 이러한 참조변수는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1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관찰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을 관찰변수의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전체관찰변수는 p<.001 수준에서 각 잠재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관찰변수가 그 잠재변수를 잘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에 포함된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 관련 변수는 다양하며, 또한 그 변수들 간의 상관 또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관찰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전체적으로 대표하여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며 추정된 모수 즉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모수(λ)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는 것은 각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관찰변수가 제한적이지만 타당성이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표 Ⅳ-4>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외생변수)

외생변수				
관찰변수	모형 1(내면화문제)		모형 2(외현화문제)	
	부부갈등(ξ_1)	스트레스(ξ_2)	부부갈등(ξ_1)	스트레스(ξ_2)
갈등빈도	1.00	-	1.00	-
갈등강도	1.03(23.95)*	-	1.03(23.99)*	-
갈등해결	.91(21.69)*	-	.91(21.65)*	-
부모요인	-	1.00	-	1.00
학업요인	-	.96(12.88)*	-	.94(12.93)*
친구요인	-	.74(10.44)*	-	.68(9.88)*
외모요인	-	.89(12.19)*	-	.87(12.17)*
물질요인	-	.98(13.09)*	-	.97(13.25)*

( )는 t-value *p<.001.

<표 Ⅳ-5>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내생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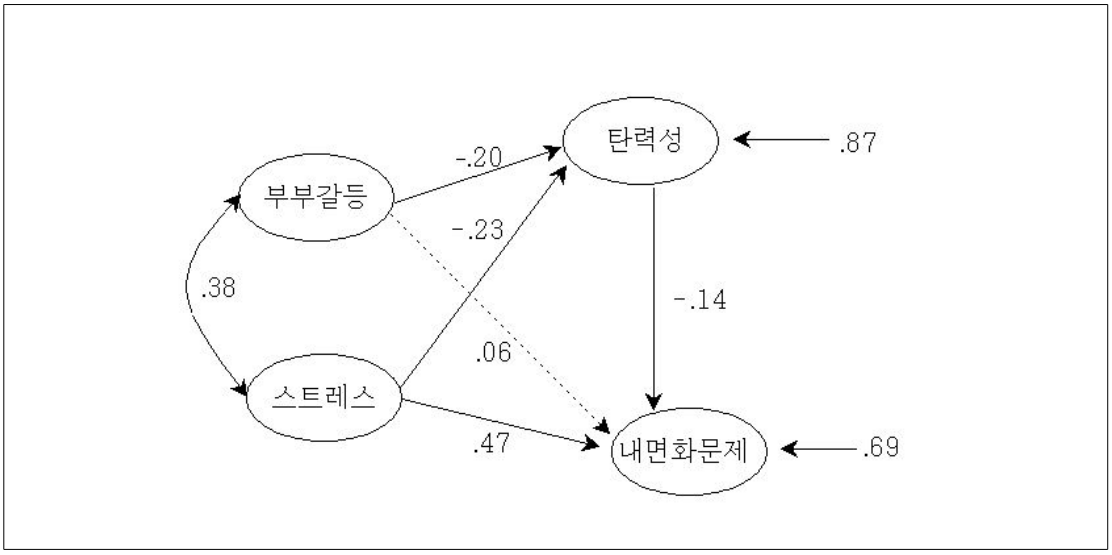
내생변수		
관찰변수	모형 1(내면화문제)	
	탄력성(η_1)	내면화문제(η_2)
개인내적 탄력성	1.00	-
대인적 탄력성	1.26(11.13)*	-
내면화문제	-	1.00
관찰변수	모형 2(외현화문제)	
	탄력성(η_1)	외현화문제(η_2)
개인내적 탄력성	1.00	-
대인적 탄력성	1.22(10.59)*	-
외현화문제	-	1.00

( )는 t-value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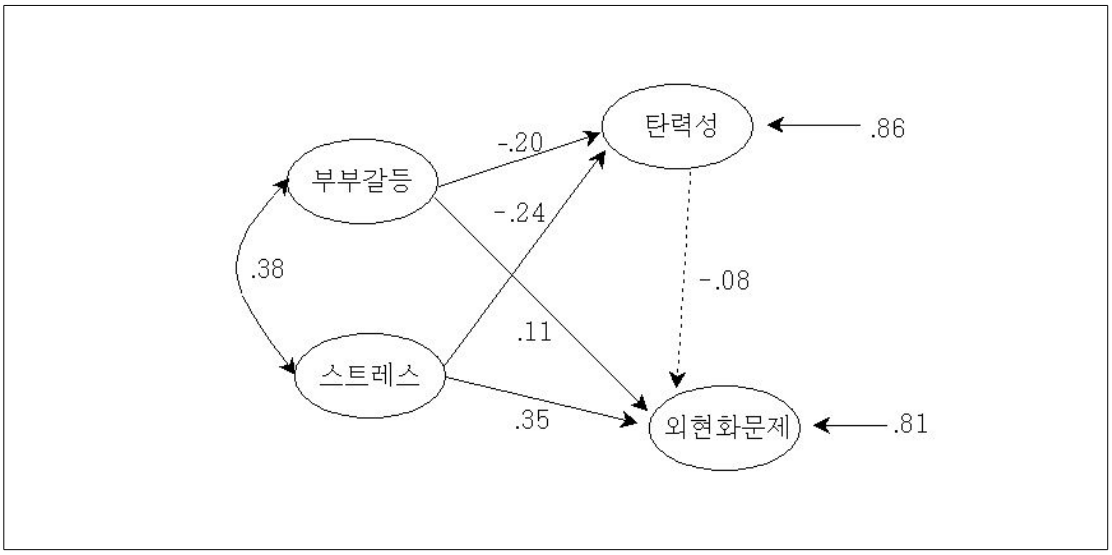
[그림 Ⅳ-3]과 [그림 Ⅳ-4]는 구조모형의 추정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로계수는 표준화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선으로 나타낸 경로는 유의한 경로이고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다.

내면화문제(모형 1)에서 인과관계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내면화문제 경로이다. 그 외의 경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탄력성, 스트레스→탄력성, 탄력성→내면화문제는 부적영향을,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내면화문제, 스트레스→내면화문제는 정적영향을 나타낸다. 또한 외현화문제(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탄력성→외현화문제 경로이다. 그 외의 경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탄력성, 스트레스→탄력성은 부적영향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외현화문제, 스트레스→외현화문제는 정적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Ⅳ-3〕 내면화문제 구조모형 추정결과(모형 1)



〔그림 Ⅳ-4〕 외현화문제 구조모형 추정결과(모형 2)

〔그림 Ⅳ-3]과 〔그림 Ⅳ-4]의 구조모형 추정결과와 <표 Ⅳ-6>에 제시된 구조모형의 전체, 직접, 간접경로 추정결과를 통해 두 모형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즉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은 모델에 포함된 잠재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두 변수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라 한다(배병렬, 2006). 그러므로 간접효과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두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표 Ⅳ-6> 전체, 직접, 간접 효과

	추정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경로
내면화문제 (모형1)	부부갈등	-.20(-4.12)***	-.20(-4.12)***	-	부부갈등→탄력성
		.09(2.05)*	.06(1.36)	.03(2.68)**	부부갈등→내면화문제
	스트레스	-.23(-4.31)***	-.23(-4.31)***	-	스트레스→탄력성
		.50(9.74)***	.47(9.11)***	.03(3.02)**	스트레스→내면화문제
	탄력성	-.14(-3.65)***	-.14(-3.65)***	-	탄력성→내면화문제
	추정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경로
외현화문제 (모형2)	부부갈등	-.20(-4.09)***	-.20(-4.09)***	-	부부갈등→탄력성
		.12(2.84)**	.11(2.45)*	.02(1.67)	부부갈등→외현화문제
	스트레스	-.24(-4.38)***	-.24(-4.38)***	-	스트레스→탄력성
		.37(7.32)***	.35(6.81)***	.02(1.77)	스트레스→외현화문제
	탄력성	-.08(-1.84)	-.08(-1.84)	-	탄력성→외현화문제

( )는 t-value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변수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변수보다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더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림 Ⅳ-3]과 [그림 Ⅳ-4]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 변수가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47(t=9.11, p<.001),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35(t=6.81, p<.00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표 Ⅳ-7>에 제시된 스트레스가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내면화문제(모형 1)에서는 .03(t=3.02, p<.01)으로 통계적으로 유미하지만, 외현화문제(모형 2)에서는 .02(t=1.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부모요인, 학업요인, 친구요인, 외모요인, 물질요인을 나타내는 스트레스는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더 크지만 내면화문제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트레스는 탄력성을 매개로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현화문제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Ⅳ-3]과 [그림 Ⅳ-4]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06(t=1.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11(t=2.45, p<.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표 Ⅳ-7>에 제시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t=2.68, 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t=1.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해결로 나타나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탄력성을 매개로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외현화문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탄력성을 매개로 외현화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Ⅳ-3]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20(t=-4.12, p<.001)이고, [그림 Ⅳ-4]에서 -.20(t=-4.09, p<.001)으로 두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3]에서 스트레스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23(t=-4.31, p<.001)이고, [그림 Ⅳ-4]에서 -.24(t=-4.38,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는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탄력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내면화문제에 -.14(t=-3.6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외현화문제에 -.08(t=-1.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탄력성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하지만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두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의 모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결과는 방해오차이다. 두 정서·행동문제의 최종경로인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의 방해오차가 각각 .69과 .81이다. 이것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탄력성이 내면화문제를 31%, 외현화문제를 1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현화문제보다 내면화문제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Ⅴ. 논의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탄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탄력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적인 관계모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 각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청소년의 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적인 개입전략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 변수들의 차이

본 연구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 각 변수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성별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의 4개 변수 중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많은 연구에서 남아가 부부갈등의 영향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Emery & O'Leary, 1982; Hart et al., 1998), 권영옥(1998)은 여아가 부모의 갈등에 남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으며, Emery와 O'Leary(1984)는 남아와 여아 모두 부부갈등에 노출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Zaslow(198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결과가 도출된 것은 부모의 갈등을 파악하고 지각하는 것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갈등에 대한 성차의 연구들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

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와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변수 중 친구요인에서는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부모요인, 학업요인, 외모요인, 물질요인에서는 모두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더 경험한다(Hankin et al., 2007)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보건복지가족부(2008)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는 연구,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여자청소년이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Williams와 Pow(2007)의 영국 십대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성차 여부를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는 연구 등 이외에도 많은 연구(고재홍・윤경란 2007; Brooks et al, 2002; Byrne et al, 2007; Hampel & Petermann, 2006)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있어서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생리적으로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는 남자청소년은 자기주장성과 경쟁성이 강조되고, 여자청소년에게는 순종을 강조하는 문화이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자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여자청소년도 남자청소년과 같이 자기주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매사 적극적인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문화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역할 기대를 갖고 있어 전통적인 여자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더 높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영화에 나오는 인기배우나 TV 광고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모델 또는 잡지의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판단을 획일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몸짱', '얼짱' 신드름은 더욱 자신의 신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여자청소년들은 마른 체형을 만들기 위해 섭식을 조절하기도 하며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강박관념도 갖게 되었다(김승경・손승경, 2005). 사회가 아름답다고 인정

하는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특히 성장과도기에 있는 여자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의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력성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용준과 박경자(200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나, 이윤주(2004)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많은 연구(정선미・조옥귀, 2009; 최지영・박경, 2007; 하현주 외, 2008)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탄력성의 성차에 대한 반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행동문제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김유경(2004)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며 더 심각한 수준의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면화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고정자, 2003; 노숙영, 1998),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고정자, 2003)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남아의 경우에는 심리적 부적응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밖으로 표출하는 외현적인 문제를 많이 드러내는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심리적 부적응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게 되는 내면화된 문제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이영희, 2007)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연구는 남아의 경우 외현화문제, 여아의 경우 내면화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남자청소년이 보이는 내면화문제에, 여자청소년이 보이는 외현화문제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남자청소년의 외현화문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여자청소년의 외현화문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4). 또한 같은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여자청소년의 공격행동의 특징이 관계적 공격성(문용린 외, 2007)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청소년이 보이는 내면화문제, 여자청소년이 보이는 외현화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성별의 평균차이가 미미함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결과가 나타난 변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와 탄력성의 변수는 평균 1점~2점 차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사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서 · 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1) 내면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내면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등빈도와 내면화문제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갈등강도와 갈등해결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우울, 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송은하, 2004; Grych & Fincham, 1990)와 일치하며, 부부갈등에서 느끼는 위협과 자기비난은 자녀의 내면화문제와 관계가 있다(Fincham, Grych & Osborne, 1994)는 연구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은 부모의 갈등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지각하므로써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이에 따른 내면화문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두려움이 많은 청소년은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부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은 청소년은 내면화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요인과 내면화문제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물질요인, 부모요인, 학업요인, 외모요인 순이다. 청소년기는 부모나 교사에 비해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이은희 · 공수자 · 이정숙, 2004) 친구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수록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관계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친구의 영향은 더욱 클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친한 친구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는 것은 내면화문제를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친구의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창호와 그의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내면화문제에서 불안의 경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인간관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탄력성과 내면화문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인적탄력성과 내면화문제가 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능력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임을 시사하고 있다.

2)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갈등빈도와 외현화문제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갈등강도이고, 외현화문제와 갈등해결은 가장 낮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이혜수와 정옥분(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갈등빈도와 외현화문제가 상관이 높은 것은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3)의 관점에서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은 부부가 서로 갈등을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를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인 행동을 습득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이 부부갈등에 빈번히 노출되어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할 기회가 증가할수록 외현화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이 오가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은 자녀에게 공격성 표출이 모델이 되어 자녀가 이를 모방하게 되고, 문제해결이나 갈등해결에 부적절한 전략을 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스트레스와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질요인과 외현화문제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모요인, 학업요인, 외모요인, 친구요인 순이다.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예민함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 때, 물질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부터 느끼는 소외, 사회적 반항심과 강한 부정적 의식이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그들에게 심리적인 좌절감이나 반항심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청소년기의 외현화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DuBois와 그의 동료들(1994)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박탈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에 매우 취약했고, 교사 등 학교환경의 성인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로부터 큰 심리적 보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물질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불만 요인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 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탄력성과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인적탄력성과 외현화문제가 더 낮은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외현화문제는 낮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탄력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격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올바른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 형성은 향후 성인기의 건강한 사회적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비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등빈도와 내면화문제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갈등해결과 외현화문제는 가장 낮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Fantuzzo(1991)등의 연구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언어적이건 신체적이건 모두 자녀의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갈등빈도는 외현화문제보다 내면화문제와 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은 자녀는 외현화문제 같이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내면화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갈등해결과 외현화문제가 가장 낮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부갈등 해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갈등이 해결되는

정도나 방식에 따라 다른데,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긴장이 지속되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시킨다. 어느 가정이나 부부간에는 자라온 문화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부부의 특성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부부갈등은 부부갈등 그 자체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의 방향과 표출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여부 등 여러 요소를 청소년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부부갈등은 그 발생여부의 진위를 논하기보다 부부갈등 표출 방법상의 문제와 자녀에게 어떻게 부부갈등을 인식시키는가를 모색할 때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출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모는 부부갈등상황에 대한 자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 갈등을 대처하기 위한 여러 방안 모색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스트레스와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요인과 내면화문제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친구요인과 외현화문제는 가장 낮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라도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서·행동문제를 가장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친구요인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삶에 있어서 또래집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친구요인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근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과 친구요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많은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정서 · 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정서 · 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를 결정하는 변수는 4개로서, 본 연구에서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를 최종 경로로 구성하였다. 두 정서 · 행동문제 구조방정식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비교적 잘 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지수에서 내면화문제(모형 1)는 184.39(p=.00)이고, 외현화문제(모형 2)는 169.86(p=.00)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정서 · 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의 모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결과는 방해오차이다. 두 정서 · 행동문제의 최종경로인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의 방해오차가 각각 .69과 .81이다. 이것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탄력성이 내면화문제를 31%, 외현화문제를 1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외현화문제보다 내면화문제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결과해석에 있어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서 · 행동문제 모형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각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면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영경, 2007; 채유경, 2005; Emery & O'Leary, 1984)는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주는 직접경로와 간접경로가 둘 다 유의하였다(이민식 · 오경자, 2000)는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점은 완전매개효과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경로에 의한 매개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탄력성에 의해 발생한 간접효과인 매개효과가 더욱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청소년

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스트레스가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내면화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가 스트레스인 것으로 보고한 한태희와 홍상황(2004)의 연구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내면화문제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윤혜미 · 남영옥, 2007; 이선애, 2008)는 연구, 그리고 가족, 친구,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친다(이주리, 2009; 임은미 · 정성석, 2009; Hankin et al., 2007)는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전체효과(.50, t=9.47)에서 직접효과(.47, t=9.11)가 차지하는 비중이 간접효과(.03, t=3.02)보다 더 컸다. 전체효과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직접효과는 .47/.50=.94이므로 94%가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었고, 간접효과는 .03/.50=.06이므로 6%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었다. 따라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보다는 직접효과가 88%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화문제 방해오차는 .69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탄력성은 내면화문제를 31%정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관련변수들이 내면화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탄력성 방해오차는 .87로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탄력성을 13% 설명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적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지만 탄력성을 완전매개로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는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내면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탄력성은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부모의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내면화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탄력성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와의 부적인 영향관계에 있는데,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탄력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외현화문제와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청소년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갈등이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혜수・정옥분, 2004; Long et al, 1988)와 일치한다.

스트레스가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구자경, 2004; 노숙영, 1998; 유정선・이정숙, 2004)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이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낮아지고, 탄력성이 외현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현화문제 방해오차는 .81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탄력성은 외현화문제를 19%정도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관련변수들이 외현화문제를 그래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탄력성 방해오차는 .86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탄력성을 14% 설명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적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는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만, 탄력성을 매개로 외현화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외현화문제는 이들이 부모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에 대해 탄력성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므로 외현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외현화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에 너무 압도당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더 이상 대처할 수 없게 되면 외현화문제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나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될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왕따나 학교폭력

을 근절하고 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 간의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를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내면화문제(모형 1), 외현화문제(모형 2)를 최종 경로로 구성하였으며, 내면화문제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을 내용으로, 외현화문제는 비행, 공격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은 갈등빈도, 갈등강도, 갈등해결을 포함하는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2개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장진아・신희천, 2006; 정문자・전연진 2002)의 연구와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영경, 2007; 채유경, 2005; Emery & O'Leary, 1984)는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반면, 부부갈등이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혜수・정옥분, 2004; Long et al, 1988)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있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영향이 청소년의 문제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내면화문제에 간접효과가 있다는 점은 청소년이 위축, 신체적증상, 우울/불안등과 같은 문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영향이 탄력성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이 부부간의 갈등을 더 빈번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비행 및 공격성 등과 같은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현화문제에서 직접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에 대해 사회학습적 관점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언어적, 신체적 갈등을 목격함으로써 외현화 행동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며, 인지맥락 모델에서는 부모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위협적으로 지각되고 자기 비난감을 유발하게 될 때 내면화 문제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는데,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청소년들의 내면화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현화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맥락 모델보다는 사회학습적 관점이 잘 적용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영향이 부모자녀간의 문제 같은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부 갈등이나 이로 인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청소년의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실제 부부의 갈등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부갈등에 의해 누적된 부모의 부정적 감정이 청소년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전달되어 청소년과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부의 갈등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나타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김효은(2006)의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간의 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현화문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으로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부갈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청소년들이 외현화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명확한 경로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는 부모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외모요인, 물질요인을 포함하는 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2개이다.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 변수가 내면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스트레스를 높게 받을수록 내면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구자경, 2004; 노숙영, 1998; 유정선·이정숙, 2004)는 연구와 일치한다. 다른 한편으로 스트레스가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

보면, 내면화문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외현화문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내면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지만, 스트레스가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단정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제한점은 탄력성의 잔차(ζ)가 두 모형에서 각각 .87과 .86로 나타난 것이다. 즉 탄력성을 내면화문제(모형 1)에서 13%. 외현화문제(모형 2)에서 14%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잠재변수인 탄력성을 설명하는 관찰변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탄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여타의 변수를 더 포함시킨다면 탄력성의 영향력이 더 도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따라 탄력성의 매개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청소년의 개입에서 그들의 문제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내면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탄력성이 그 영향력을 완화시킴으로써 매개효과가 있다. 이는 청소년이 내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내면화문제에 대하여는 탄력성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어떤 청소년은 부모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부모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이전 상황보다 더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청소년은 부모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맞아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한다. 부모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리(2007)는 지지체계가 잘된 친사회적 행동에서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 주었다. 이애령(2004)은 긍정적 가치관 부모의 정서적 지지들이 탄력성을 높여주었으며,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상담 프로그램과 또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지연(2006)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체계를 활용함으로 적응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탄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과 사회, 환경적 지지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특히 부모와 친구, 교사들의 지지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와 교사의 정서적 지

지 체계를 활성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면화문제를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데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부모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을 평소에 잘 관찰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청소년 교육에서 이들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요구된다.

한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외현화문제 발생 정도가 높은 반면, 탄력성은 청소년 개인이 혼자서 심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외현화문제에 대해서는 매개역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화문제는 탄력성 증진보다는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부모훈련의 회기를 포함시키고, 부모훈련 시 부부갈등이 자녀의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당국은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본 G시의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중인 637명(남자 333명, 여자 304명)의 남녀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탄력성,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Pearson 적률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통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남자청소년 관련 4개 변수와 여자청소년 관련 4개 변수 중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스트레스와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스트레스 변수의 친구요인에서는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나머지 부모요인, 외모요인, 물질요인에서는 모두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점수가 높았다. 또한 탄력성에서도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점수가 높았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와 탄력성 그리고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에서 갈등해결과 학업요인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탄력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스트레스와 탄력성의 관계에서 외모요인과 개인내적탄력성을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스트레스와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탄력성을 매개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가 정서・행동문제(내면화문제,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내면화문제(모형 1)와 외현

화문제(모형 2)별로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문제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내면화문제에 대한 직접 효과 및 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탄력성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내면화문제 간의 사이에서는 완전매개 하지만, 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내면화문제 사이에서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의 외현화문제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한 반면, 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탄력성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는 외현화문제와의 사이에서는 매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스트레스 및 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 대하여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의 직접경로와 탄력성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의 주관적인 응답에 의존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 보고식 측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모나 교사의 보고와 같은 객관적 측정치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자 선정의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피험자 대상은 G시에 위치한 2개의 남녀공학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한정하여 비확률 임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일반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로 가정하고. 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수로 탄력성을 선정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그 영향과 경로를 탐색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매개 역할을 하는 다른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부부갈등, 스트레스 및 탄력성과 정서·행동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모든 자료를 단일회기 동안에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미래의 정서·행동문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 조사 일정이 지난 후 재조사를 통해 종단적인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부부 갈등 및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불화한 가정환경에서 대처하는 능력이나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청소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Emery, 1982) 일반적인 가정환경과 계부모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같은 변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추후의 연구관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문희 · 손승아 · 안경숙 · 김승경 (2008). **청소년의 탄력성**. 서울 : 시그마프레스.

고재홍 · 윤경란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1), 185-212.

고정자 (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구자경 (2004).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간의 관계-학교관련변인. **청소년학 연구, 11**(2), 217-239.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권복순 (2001).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 132-134.

권영옥 (1998).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행동문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권영옥 ·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김경보 (2009).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인탐구-부모의 부부갈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김광혁 (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취도 발달 궤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5), 127-141.

김교헌 · 권선중 · 심미영 (2005). 초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3-126.

김동식 (2007). 부모관련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비행행위.

예방의학회지,40(3), 218-226.

김명식 (2008). 일 도시 남녀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 645-658.

김미예・박완주 (2008).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비행성향. **아동간호학회지, 14**(4), 415-422.

김미정 (2008).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지각한 위탁부모 양육태도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동광, 104**(1), 99-148.

김보람・이경숙・박진아 (2007). 발달심리학회 : 구두발표 ;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및 정서・행동특성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8-429.

김선희・김경연 (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22**(1), 19-34.

김성수 (2006).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연구, 9**(1), 145-170.

김수정 (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69-88.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자아 탄력성과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5**(1), 9-38.

김승경・손승경 (2005). 여대생의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여성건강, 6**(1), 53-70.

김연 (2007).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김예성・박현선 (2007). 초등학교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3**(1), 65-97.

김유경 (2004).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 비합리적인 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윤 · 이선영 · 오무경 · 이은정 · 강미영 (2009).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연계 체계 개발**. 서울: 서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김은영 (2009). 소년원생의 사회적 탄력성과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6**(1), 177-204.

김은향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인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은화 (2007). **특수학교 정신지체학생의 정서 · 행동문제 특성 및 관련변인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김이순 · 김영혜 (2001). 한국 비만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연구.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18**(3), 117-131.

김준호 · 이동원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택호 ·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김혜영 (2007). 학대경험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27-332.

김효은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김희화 (2004).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75-94.

나명순 · 손주하 · 박소정 (2009). 고등학생의 손톱손상과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대한피부미용학회지, 7**(2), 95-106.

남현미 · 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노숙영 (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노영주 · 서동인 · 원효종 (2004).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서울: 하우.

도남희 (2009). **소년소녀가장의 탄력성 : 사회적 유능성과 주관적 안녕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류동훈 (2000). **교사와 부모에 대한 아동의 수용-거부 지각과 사회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류재중・조아미(2007).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모형 적합도 검증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49-69.

문용린・최지영・백수현・김영주(2007). 학교폭력의 발생과정에 대한 남녀 차이 분석: 피해자 상담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3), 703-722.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 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민선현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KSD 반응특성의 상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미자 (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문제행동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미자・이창식 (2008). 조손가족 청소년, 내면성 문제행동, 외현성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청소년복지연구, 10**(1), 93-114.

박연수 (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원주・이기학 (2008). 탄력성에 따른 성격유형별 학교생활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75-695.

박정희・유순화 (2007). 지각된 부부갈등이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1), 379-394.

박주란 (2009).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역경지각 및 보호요인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반의숙 (2009).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방명애・이효신 역 (2004). **정서 및 행동장애 :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배내윤 (2007). **정서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초・중등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배병렬 (2006). **LISREL 구조방정식 모델-제2판**. 서울: 청람문화사.

백경원・최미혜 (2006).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과 가족의 극복력. **아동간호학회지, 12**(2), 223-232.

법제처 (2010). http://www.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 백서 2008.**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09**.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서찬란 (2005).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성준모 (2007). 자녀를 둔 여성정신장애인의 탄력성 영향요인. **정신보건과사회사업, 26**(1), 50-78.

성태제 (2010).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손민경・이경님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행동문제 및 가족환경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술대회논문집, 1**, 304-304.

송미경・배주미 (2006).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개인, 가정, 학교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193-211.

송은하 (2004).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인지-맥락적 평가와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영희・심미경・김태임 (2006). 만성질환아의 극복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295-303.

신윤자 (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신정이・황혜원 (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 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 요인의 영향연구. **청소년학연구, 13**(5-2), 123-154.

신현숙 (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11**(2), 71-84.

신현숙 (2004). 가정환격 역경에 적응유연한 청소년의 보호요소에 관한 연구: 학교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1), 141-161.

신현숙・구본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1), 189-225.

안도희・김지아 (2007). 대학생의 적응유연성에 따른 집단별 특성: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 유능감 및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1), 47-67.

안동현・정승아・조재일・정선녀・정윤경・김경숙・김윤경・최민정 (2007). **청소년 부교재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 개발 연구.** 서울: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양옥승 (1997). **유아교육 연구방법**. 서울: 양서원.

엄경순 (2004). **농촌과 도시 청소년의 개인, 사회, 사회자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염행철・조성연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태학적 변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9**(2), 1-21.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 (2001).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서울: 휴노컨설팅.

오승환 (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1), 181-201.

오영경 (2007). **청소년의 행동문제 관련 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성경・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유성경・홍세희・최보윤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유은애 (2008).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82-103.

유정선・이정숙 (2004).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성장환경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75-183.

윤혜미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발표(2);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과 예방적 접근. **동광, 101**, 22-49.

윤혜미 ·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1), 127-153.

이경진 ·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이경희 (2008). 구두발표 : 한국인 부정정서의 취약성과 회복력. **연차학술발표대회눈문집,** 530-531.

이근북 · 정우석 (200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층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17-230.

이기종 (2001).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전체모형 평가지표 χ^2의 사용오류와 교정방안. **교육평가연구. 14**(2). 219-229.

이기종 (2005). **구조방정식모형 인과성, 통계분석 및 추론.**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이미애 (2006). **학교환경요인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이민식 ·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이보경 (2004).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우울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이선애 (2008). 청소년 스트레스가 인터넷 이용시간에 미치는 경로분석-자아통제 · 부모애착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1), 103-122.

이소현 · 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이수현 · 최해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이승희 역 (2007). **사례중심적 접근-정서 · 행동장애의 이해.** 서울 : 박학사.

이애령 (2004). **청소년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용인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이연숙 (2006).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 참가와 자아탄력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511-528.

이영희 (2007). **가족 및 개인 변인이 고등학생의 학구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이완정 (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이용준・박경자(2005).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329-345.

이윤주 (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5**(2), 435-448.

이은경・박성연 (2004).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이화교육논총, 14**(1), 79-93.

이은희・공수자・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이은희・구정화 (2009). 가족탄력성이 한 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61-80.

이정미 (2005). **미시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이종국・안동현・서정완・신충호・임대현・정세환・유한익・문진수 (2009). **소아청소년기 건강검진 권고안 개발 연구**. 서울: 대한 소아과학회.

이종원・임성택・최원기・최종헌・심진예 (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주리 (2009).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와 스트레스간 상호영향 :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의 적용.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5-49.

이지연 (2006). **발달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찬주 (2009).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이창호 · 양미진 · 이희우 · 이은경 (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이해리 (2007).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의 역할**.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해리 ·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이해리 · 조한익 (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53-371.

이혜수 · 정옥분 (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1), 47-62.

임상희 (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임은미 · 정성석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6**(3), 99-121.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장덕희 (2010). 부부폭력 목격경험에 따른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청소년학연구, 17**(1), 143-166.

장진순 (2003). 부부가 지각된 부부갈등과 학령기 자녀의 행동문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장진아 ·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정경택 (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12**(2), 151-162.

정문자 (1988). 유아의 문제 행동. **한국아동학회지**, 추계학술대회자료집.

정문자 · 전연진 (2002).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3**(2), 41-55.

정봉희 · 김혜경 · 이영순 (2009).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

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논단, 18**(1), 291-312.

정선미・조옥귀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8**(1), 133-158.

정의숙・김갑숙 (2008).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빗속의 사람그림 반응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71-81.

정진경・오경자・문경주・조아라 (200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비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755-770.

조계연・이은희 (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조광순 (2004). 정서・행동장애학생의 이해와 교수방법. **직무연수, 1-2,** 235-250.

조정혜 (200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갈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춘범 (2006).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3**(2), 1-29.

주소영・이양희 (2008). 아동학대화 탄력성의 관계에서 인지기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9**(3), **127-156.**

차정은・이지연・황상희 (2009).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유기공포의 매개효과검증-남녀 청소년의 모형 비교. **청소년시설환경, 17**(2), 3-15.

차주연 (2003). **청소년의 강인성과 적응유연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채유경 (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부부갈등, 영적 안녕 및 공격성 간의 관계. **가족과문화, 17**(2), 189-209.

천희영・옥경희・황혜영 (2008). 한국과 연변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탄력성과 양육요인 및 사회정서적 적응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57-70.

최선희・김희수 (2006). 아동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다차원 상호작용. **한국아동복지학, 21**(1), 233-258.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윤정・이시연 (2007).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부적응에 가족환경이 미치는 영향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5**(1), 39-49.

최지영・박경 (2007).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자아탄력성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 **심리치료, 17**(2), 127-144.

하영희, C. P. Edwards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학회지, 25**(2), 121-132.

하현주・박원모・박명숙・천성문 (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7**(1), 1-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http://panel.nypi.re.kr

한태영 (2005). 청소년의 학교장면 스트레스: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77-197.

한태희・홍상황 (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문제의 관계에서 인지변인과 부정적 대처방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1-21.

한현아・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한희진・윤미선 (2009).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대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영향력. **교육문제연구, 34**(1), 81-100.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161-177.

홍은숙 (2006). 탄력성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황혜원 (2007).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 **한국사회과학연구 29**(1), 43-56.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hern, N. R. (2006). Adolescent resilience: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1*(3), 175-185.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rber, B. K., & Olsen, J. A. (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287-315.

Benson, P. L. (1990), *The troubled journey: A portrait of 6th-12th grade youth.*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2), 281-295.

Block, J., & Gjerde, P. F.(1990).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 In J. Roff, A. S., Masten, D. Dicchetti, K. H. Neuchterlein, and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334-36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Block, J. H., Block, J., & Gjerde, P. J. (1986). The personality of children prior to divorce. *Child Development, 57*(Aug), 827-840.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Brooks, T. L., Harris, S. K., Thrall, J. S., & Wools, E. R. (2002). Association of adolescent risk behaviors with mental health symptoms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3), 240-246.

Brooks, R. (2006). The power of parenting. Goldstein, S. & Brooks, R. B(Ed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297-314.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Inc.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 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1), 15-78.

Byrne, D. G., Davenport, S. C., & Mazanov, J. (2007). Profiles of adolescent stress: The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 stress questionnaire(ASQ). *Journal of Adolescence, 30*(3), 393-416.

Calkins, S. D., & Fox, N. A. (2002). Self-regulatory processes in early personality development: A multilevel approach to the study of childhood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3), 477-498.

Campbell, S. B. (1994).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1), 113-149.

Chung, H. K., & Kim, K. H. (2000). The perception of teenagers on the bully: With the subject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1), 137-147.

Cillessen, A. H., Ijzendoorn H. W., & Lieshout F. M. (1992). Heterogeneity among peer-rejected boys: Subtypes and stabilities. *Child Development, 63*(4), 893-905.

Cohen, S., Kessler, R. C., & Gorcon, L. U. (1995). *Measuring St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ohn, L. D. (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2), 252-266.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2), 317-333.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 Merrill.

Connor, D. F. (2002).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uilford Press.

Cummings, E. M., Ballard, M., & El-Sheikh, M. (1991). Respons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how anger is expressed. *Merrill-Palmer Quarterly, 37*, 543-560.

Cummings, E. M., & Cummings, J. S. (1988).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3), 296-321.

Cummings, E. M., Davies, P. T., & Simpson, K. S.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141-149.

Cummings, E. M., Simpson, K. S., & Wilson, A. (1993).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information about resolu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978-985.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1989). *Special schools four pupil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Circular*, 23-89.

DuBois, D. L., Felner, R. D., Mear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ce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522.

Easterbrooks, M. A., Cummings, E. M., & Emde, R. N. (1994).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constructive marital disput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160-169.

Egeland, B., Carlson, E., & Sroufe, L. A (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517-528.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ntin, 92*(3), 310-330.

Emery, R. E. (1989).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321-328.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1), 11-24.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3), 411-420.

Emslie, G. J., & Mayes, T. L. (1999).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 A guide to diagnosis and treatment. CNS Drugs, 11(3), 181-189.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n, F. (2000). Frequency, comorbidit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of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 Adolesc Res, 15*(4), 470-481.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L., Martino, T., Anderson, G., & Sutton, S. (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2), 258-265.

Fergusson, D. M., Horwood, L. J., Ridder, E. M., & Beautrais, A. L. (2005).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ce and subsequent mental health outcomes in young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5*(7), 983-993.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N.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2), 128-140.

Fox, J. A., & Newman, S. A. (1997). After-school crime or after-school programs: tuning into the prime time for violent juvenile crime and implications for national policy.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attorney general. Washington,

DC: Fight Crime: Invest in Kids, 10-12.

Freud. A. (1946). *The ego and the mechanism of defens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Garmezy, N. (1991). Resilience in children's adaptation to negative life events and stressed environments. *Pediatrics, 20*(9), 459-466.

Garmezy, N., & Rutter, M.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McGraw Hill.

Garmezy, N., & Rutter, M. (1985). Acute reactions to stress. In M. Rutter & L. Hersov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 Modern approaches* (2nd ed., pp. 152-176). Oxford : Blackwell Scientific.

Gelfand, D. M., & Drew, C. J. (2003). Understanding child behavior disorders(4th ed.). Belmont Thomson.

Gjerde, P. F., Block, J., & Block, J. H. (1986). Egocentrism and ego resilienc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spective-taking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423-434.

Goldberger, L., & Breznitz, S. (1982). *Handbook of stress*. New York: Free Press.

Graber, J. A. (2004). Internalizing problems during adolescence. In R. Lerner & L. Steinberg(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Green, R. R. (2004). *Resiliency: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Washington Press.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1), 215-230.

Grych, J. H., Harold, G. T., & Miles, C. J. (2003). A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appraisals as mediators of the link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4(4), 1176-1193.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Hankin, B. L., Mermelstein, R., & Roesch, L. (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78*(1), 279-295.

Hampel, P., & Petermann, F. (2006). Perceived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4), 409-415.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87-697.

Henderson, N., & Milstein, M. M. (1996). Resiliency in school: *Making it happen for students and education.* Thousand Oaks, CA: Corwin.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Hetherington, M. E., Cox, M., & Cox, R.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815-830.

Johnson, P. L., & O'Leary, K. D. (1987). Parental behavior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4), 573-581.

Jenkins, J., Simpson, A., Dunn, J., Rasbash, J., & O'Connor, T. G. (2005). Mutual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hared and nonshared family risks. *Child Development, 76*(1), 24-39.

Kagan, D. T. (1984). Three computer programs for use in introductory level physics laboratories. *Physics Teacher, 22*, 443-452.

Katz, L. E., & Gottman, J. M. (1993). Patterns of marital conflict predic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940-950.

Kauffman, J. M. (1993). Definition: The Nature of the problem. In J. Kauffman(ed.).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ehavior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3rd ed.).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Kauffman, J. M. (2005).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Hall.

Kazdin, A. E. (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48*(2), 127-141.

Kellner, R. (1991). *Psychosomatic syndromes and Somatic symptoms. American and psychiatric.* Press, Inc.

Kernic, M. A., Wolf, M. E., Holt, V. L., McKnight, B., Huebner, C. E., & Rivara, F. P. (2003).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whose mothers any abused by intimate partner, *Child Abuse and Neglect, 27*(11), 1231-1246.

Kerr, M. M., & Nelson, C. M. (1989). *Strategies for managing problem behaviors in the classroom.*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Kim, Y. R., Chung, S. K., & Yoo, S. K. (2007). Effect of empowermen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 163-190.

King, N. J., & Ollendick, T. H. (1989). Children's anxiety and phobic disorders in school settings: Classific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ssu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9*(4), 431-470.

Kirmayer, L. J. (1984). Culture, Effect and Somatization-Part 2. *Transcultural Psychiatric Research Review, 21*(3), 159-188.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Kwak, S. R. (200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1), 1-21.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i, S. T., & Nussbaum, K. M. (200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Urban African-American Youth. *Am J Community Psychol, 39*(1-2), 21-35.

Lightsey Jr., O. R. (2006). Resilience, meaning, and well-bing.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1), 96-107.

Lipowski, Z. J. (1988). somatization: The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iry, 145*(11), 1358-1368.

Liu, X. & Kaplan, H. B. (1999). Explaining the gender difference in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mediating mechanisms. *Criminology, 37*(1), 195-215.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67-469.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A study of high 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Luthar, S. S., &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and social polici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4), 857-885.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a,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143-169.

Masten, A. S., & Powell, J. L. (2003). A resilience Framework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Luthar, S. S. (Eds.),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1-2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nninger, W. C. (1947). Psychosomatic medicine: Somatization reaction. *Psychosomatic medicine, 9*(2), 92-97.

Muse, N. J. (1990). *Depression and suicid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ustin, TX: Pro-Ed.

Olsse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1), 1-11.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295-307.

Porter, B., & O'Leary, K.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3), 287-295.

Prelow, H. M., Loukas, A., & Jordan-Green, L. (2007). Socio environmental risk and adjustment in Latino youth: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process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4), 465-476.

Roberts, A. R. (1981). *Runaways and non-runaways in an American suburb: an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and parental coping*. John Jay press; New York.

Robins, L. N. (1991).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1), 193-212.

Rodgers, K. B., & Rose, H. A. (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1024-1037.

Rolfe, S. (2004). Rethinking attachment for early childhood practice. Sydney : Allen & Unwin.

Rosenberg, F. R., & Ros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1.

Ross, A. O. (1974). *Psychological disorders of children: A behavioral approach to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 J. Rolf. A.

Masten, D. Cicche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oon, I. (2006). *Risk and resilienc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red, R., Mcdonnell, P. m., Church, G., & Rowan, J. (1991). *Infants cognition and emotional responses to adult's angry behavior.* Post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Smith, E. J. (2006). The strength-based counseling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1), 13-79.

Spaccarelli, S., & Kim, S. (1995). Resilience Criteri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ce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 neglect, 19*(9), 1171.

Spence, S. H., Donovan, C., & Brechman-Toussaint, M. (1999). Social Skill, social outcomes, and cognitive features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2), 211-221.

Steckel, W. (1943).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New York, Liveright.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Hillsdale, NJ: Erlbaum.

Weber, H. (2003). Stress. In R. Fernandez-Ballesteros(Eds.), *Encyclopedia of psychological assessment*, 920-924, Sage Publications.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s.* New York: McGraw-Hill.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Wicks-Nelson, R., & Israel, A. C. (2003). *Behavior disorders of childhood*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 Prentice-Hall.

Williams, B., & Pow, J. (2007). Gender differences and mental health: An

exploratory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 mental health among Scottish teenager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2*(1), 8-12.

Windom, C. S. (1997). Child abuse, neglect, and witnessing violence. In D. M. Stoff, J. Brelling, & J. D. Maser (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New York: Wiley.

Wright, M. O., Masten, A. S, Northwood, A., & Hubbard, J. J. (1997). Long-term effects of massive trauma: Developmental and psychobiological perspectives.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9. The effects of trauma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Zaslow, M. J. (1989).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 to parental divorce: Two samples, factors, ages and sour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1), 118-141.

부　　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부모님과 자신의 평소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평소에 느꼈던 점이나 생각했던 점을 여러분의 생각과 같거나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본 질문지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연 구 자 장은옥
지도교수 이승희

기입요령

1. 해당되는 항목의 밑줄 위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2. 각 문항에 알맞은 답이 없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기타 란에 간략히 써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
_____1) 남
_____2) 여

2. 학생의 학년
_____1) 1학년
_____2) 2학년
_____3) 3학년

3. 아버님의 학력
_____1) 대학원졸
_____2) 대학교졸
_____3) 고등학교 졸업 이하

4. 어머님의 학력
_____1) 대학원졸
_____2) 대학교졸
_____3) 고등학교 졸업 이하

5. 학비 및 급식비 서비스 유무
_____1) 유(서비스 받는다)
_____2) 무(서비스 받지 않는다)

6. 종교
_____1) 기독교
_____2) 천주교
_____3) 불교
_____4) 종교 없음
_____5) 기타( )

7.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가족
_____ 1) 할아버지
_____ 2) 할머니
_____ 3) 아버지
_____ 4) 어머니
_____ 5) 형( )명
_____ 6) 오빠( )명
_____ 7) 누나( )명
_____ 8) 언니( )명
_____ 9) 남동생( )명
_____10) 여동생( )명
_____11) 기타( )

Ⅰ.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기입요령
평소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서로에게 대하시는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항상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본적이 없다.					
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3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4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주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신다.					
5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풀지 못하신다.					
6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조용히 의논하신다.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옆에 있더라도 자주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8	나는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을 자주 본다.					
9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내신다.					
10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신다.					
11	우리 부모님은 거의 다투시지 않는다.					
12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지신다.					
13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는 큰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14	우리 부모님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자주 잔소리와 불평을 하신다.					
15	우리 부모님은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적이 거의 없다.					
16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17	우리 부모님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다정하시다.					
18	우리 부모님은 다투시는 도중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19	우리 부모님은 다투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나쁘게 하신다.					

Ⅱ. 스트레스 척도

기입요령
다음은 평소에 학생 여러분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적힌 내용의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그런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5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6	숙제(과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8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9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1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3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5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6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7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Ⅲ. 탄력성 척도

기입요령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별로 아니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2	집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은 무시되는 편이다.						
3	내 친구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싸우지 않는다.						
4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5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무슨 일을 잘 해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7	가족, 학교선생님 외에 내가 신뢰할만한 어른이 계신 것 같다.						
8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규칙을 지킨다.						
9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 나도 아픔을 느낀다.						
10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결국엔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11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						
12	가족, 학교선생님 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계신 것 같다.						
13	내 친구들은 학교생활을 잘 한다.						
14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15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이다.						
16	나는 학급 활동이나 규칙들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한다.						
17	가족, 학교선생님 외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어른이 계신 것 같다.						
18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다.						
19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려고 한다.						
20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신다고 믿는다.						
21	학급에서 임원(반장, 부반장, 부장 등)을 맡아 일한다.						
22	나는 자선기관이나 교회, 혹은 다른 단체에서 자원봉사나 후원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						
23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24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별로 아니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신앙 덕분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						
26	우리 학급이나 학교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제시한다.						
27	YMCA, 보이스카우트, 청소년 환경단체, 청소년 인권감시단 등의 지역사회청소년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28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찬찬히 생각해 본다.						
29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종교생활은 내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31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있다.						
32	복지관, 청소년 상담원, 쉼터, 수련원, 교회, 절 등의 기관에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봉사 주일학교 등에 참여한다.						
33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법들을 생각해본다.						
3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 할 수 있다.						
35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할 말이 있을 때 내 말을 들어준다.						
36	나는 친구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주려고 한다.						
37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한다.						
38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39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우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할 때 알아차린다.						
40	나는 또래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41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낙담하지 않는다,						
42	어려움이 많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43	나는 집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일에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4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						
45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참을 수 있다.						
46	세운 목표나 계획들을 실천하는 편이다.						
47	어떤 일이라도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다.						
48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Ⅳ. 내면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척도

기입요령
금년(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각 문항에 적힌 행동의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내 용	전 혀 아니다	가 끔 그렇다	자 주 그렇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2	자랑을 많이 한다.			
3	외롭다고 느낀다.			
4	잘 운다.			
5	남에게 못되게 군다.			
6	고의로 자해행위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7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8	내 물건을 부순다.			
9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10	학교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			
11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12	다른 사람에게 시샘을 잘한다.			
13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14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5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6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			
17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한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19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20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21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22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23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24	어지럼증이 있다.			
25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26	매우 피곤하다고 느낀다.			
27	나는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28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번호	내 용		전 혀 아니다	가 끔 그렇다	자 주 그렇다
29	의학적으로 밝혀진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1) 몸이 쑤시고 아프다.			
		2) 두통			
		3) 메스꺼움			
		4) 눈의 이상			
		5)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6) 배앓이 혹은 복통			
		7) 구토			
		8) 기타(구체적 내용)			
30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31	가출한다.				
32	고함을 많이 지른다.				
33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34	나는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 한다.				
35	불을 지른다.				
36	의시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37	수줍어 한다.				
38	우리 집의 물건을 훔친다.				
39	우리 집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40	고집이 세다.				
41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42	나는 의심이 많다.				
43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44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45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46	남을 잘 놀린다.				
47	나는 성미가 급하다.				
48	남들을 신체적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49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하기도 한다.				
50	기운이 별로 없다.				
51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52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53	술을 마시거나 치료목적으로 쓰는 것 이외의 약물을 사용한다.				
54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55	나는 걱정이 많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학과	학번	20057555	과정	박사
성 명	한글 장 은 옥	한문 張 銀 玉		영문 Jang, Eun-Og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884-4번지				
연락처	e-mail : eunog-7@hanmail.net				
논문 제목	탄력성을 매개로 부부갈등과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Stress on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with Resilience as a Mediator in Adolesce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

2010 년 8 월

저작자 : 장 은 옥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